

제315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8일(월)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교육부
 - 나. 국사편찬위원회
 - 다. 국립특수교육원
 - 라. 중앙교육연수원
 - 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바. 국립국제교육원
 - 사. 대한민국학술원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 1
 - 가. 교육부
 - 나. 국사편찬위원회
 - 다. 국립특수교육원
 - 라. 중앙교육연수원
 - 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바. 국립국제교육원
 - 사. 대한민국학술원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보고

- 가. 교육부
- 나. 국사편찬위원회
- 다. 국립특수교육원
- 라. 중앙교육연수원
- 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바. 국립국제교육원

사. 대한민국학술원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와 소속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서남수 장관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교육부장관이 임명된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과 과학 분야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극복하고 서남수 장관의 지휘 아래 새로운 교육부로 탄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가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철학, 비전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또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 중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진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소속 기관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관장님들의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부 서남수 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에게 교육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교육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고견을 반영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활짝 피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나승일 차관입니다.
- 성삼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입니다.
-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입니다.
- 정종철 정책기획관입니다.
- 강영순 국제협력관입니다.
- 김영윤 학교정책관입니다.
- 황홍규 학생복지안전관입니다.
- 박춘란 대학정책관입니다.
- 박준 대학지원관입니다.
- 서유미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 정병걸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 박용수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 이근우 교육정보통계국장입니다.
- 김문희 대변인입니다.

박준모 감사관입니다.
설세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 (간부 인사)
- 이어서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장입니다.
- 서명범 중앙교육연수원장입니다.
- 이종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하태운 국립국제교육원장입니다.
- 최진명 학술원 사무국장입니다.

(소속 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의 추진계획, 이어서 현안보고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입법추진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육사에 유례가 없이 짧은 기간에 공교육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함께 한계도 있습니다. 높은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흥미도가 떨어지고 높은 교육열은 지나친 학벌 경쟁으로 이어져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교원 수는 크게 늘고 전문성도 높아졌지만 업무부담 증가와 교권침해 빈발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고등교육 기회는 늘었지만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과 지방대의 위상 하락 등 심각한 문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전직자·조기퇴직자 등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10쪽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새 정부 교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 앞으로 추구해 나아갈 우리 교육의 미래비전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한껏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 중심 사회 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으로 창의인재를 길러내고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계획들입니다.

13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과도한 학업 및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에 연구학교를 선정,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전면 실시 때는 학교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강화하고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단체 및 기관들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배치를 확대하고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학교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력과 위험이 없는 학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CCTV, 학생보호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뿐

아니라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Wee 클래스 등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 현장의 우수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어울림프로그램, 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와 수업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의 연차적 감축 목표에 따라 교원 증원을 추진하고 교원들의 내실 있는 수업 준비를 위한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원의 과도한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각종 교원평가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큰 대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입시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을 금년 8월까지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출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고, 한국형 공동원서접수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복교육 실현,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두 번째 주요 목표로써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벌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일자리 중심 인재 양성과 활용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고교, 전문대학, 지방대학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활용으로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이미 개발된 직무능력표준을 시범 적용하고, 학교교육·평생교육·직장교

육과 학점을 연계한 국가역량체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검정 없이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과정이 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정착되도록 교육부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취업희망자가 제대로 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졸 취업자들을 직무수행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로 길러 내겠습니다. 취업한 이후에도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후진학 기회도 더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대학의 학위과정과 수업연한을 다양화해서 맞춤형 직업교육 및 고령화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대학들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방대 살리기를 위한 특성화, 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진학·취업·정주대책을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성화, 재정 지원으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겠습니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연차적으로 키워 GDP 대비 1%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국가장학금 확충 등 꼭 필요한 곳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의 전제조건으로써 대학재정의 신뢰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평가도 개선하겠습니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로 바꾸고 안정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대학의 질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산업, 학문, 연구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외 지역에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올해 시범 실시 후 점차 확대하고, 국민의 생애단계별·계층별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행복교육 실현,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세 번째 주요 목표로써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부터 17세까지 각 단계에 따라 다양한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내실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부처 간에 중복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올 1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질 향상으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 후 지역, 소득계층, 교육비 항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 및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제의 결과를 차년도 고입·대입전형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법안에 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렸지만 좀 더 노력해서 기준금액을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나가고, 성적기준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군복무 기간에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의 수혜대상도 더 확대하고 채무 부담을 낮춰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방식의 기숙사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100억 원을 반영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대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하여 내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여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을 더 늘리고 대학에서의 학습도우미 지원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문화·탈북 가족 자녀가 한국사회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입니다.

유아교육의 균등한 질을 담보하고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민관 합동 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유·보 통합 모델을 지자체 시범 지역에 적용, 그 결과 평가 후에 최종 모델을 선정해서 희망지역 시행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체제 통합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회계직원 인력 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조리사, 전문상담사 등 비정규직 직원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의 전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부당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지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확인하겠습니다.

단순한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의 차원을 넘어 학교 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회계직원이 학생의 학습활동과 교원의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

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 학교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매뉴얼 개발, 안전 점검, 시설 개선 노력으로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근원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범정부 합동의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 추진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이 체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의 점검 보완과 함께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담은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올 7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릴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다른 기관장들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교육부 관련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새 정부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교육부가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이견회 회장의 손자가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한 데 대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는 등 사회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관련 자료 요청을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교문위원장 이름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해서 열람하는 것으로 저희가 양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3월 29일인데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어제 교육부에서 이런 문서를 보내서, ‘열람을 허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국방이라든지 그리고 대북관계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충분히 감안해서, 개인정보임을 감안해서 열람하기로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자료 제출 거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것은 앞으로도 전례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 또 교육정책실장,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 서기관, 이 4명 관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의 조치를 봐서 어떤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 정부에서 우리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자료제출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했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장관께서 여기에 관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정부 내부의 어려움, 고충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3월 15일 날 이야기할 때 '이것을 29일 날 열람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보고까지 해 놓고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후에 열람 또 거부하실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서서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오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그냥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먼저 자료 제출이 늦어지

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 문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거부하기보다는 일부 학교에서 거기에 지나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한 80% 조금 넘는 수준으로는 들어왔는데 아직도 한 20% 정도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요구에 순응해서 자료 제출한 학교에 관한 정보는 보고를 드리는 게 되고 그것을 거부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학교는 그게 늦어지는 결과가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일부 학교들이 계속 끝까지 자료 제출을 더 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못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강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사교육 자치에 의한 자기들의 거부도 한 몫을 한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하여튼 오후까지 회의를 한번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여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국사편찬위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현황 전반, 201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는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마는 보고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3쪽에 국편 업무의 법률 근거와 연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조직은 4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부 4실 1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5명입니다.

예산은 2013년 현재 총 약 155억이며 이 가운데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약 75억입니다.

주요사업비의 세부내역은 5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현황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사편찬위의 사업은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둘째 사료의 연구·편찬·간행, 셋째 한국사 정보화, 넷째 역사 교육과 역사 대중화, 다섯째 한국사의 국제화 등입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먼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은 국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문에서는 전근대, 근현대 등 전 시기를 망라하여 사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년 전부터는 지역사와 구술사 사료의 수집에 착수해서 그 성과를 자료집으로도 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외 부문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정리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료의 자세한 수집현황은 30쪽에 붙임 2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연구·편찬·간행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초기부터 시대별·주제별로 중요한 연구서와 자료집을 발간해서 학계에 제공해 왔습니다. 10쪽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등 한국사 연구의 기본사료를 편찬·간행했고 현재도 계속 중요한 자료집을 간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2000년 무렵부터 한국사 정보화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54건의 이르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서비스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사료를 찾아 굳이 국내외 도서관이나 자료관에 직접 가지 않고 집이나 연구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모을 수 있는 정도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역사 분야의 27개

기관, 32개 사이트를 연계한 것으로서 이것도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비스 현황은 붙임 4와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교육, 역사 대중화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현재 새롭게 역량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사편찬위는 2011년 역사교과서 검정 업무를 위임받아 2012년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역사부도에 대한 검정을 완료했으며, 2013년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부도의 검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에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06년 제1회 시험을 시작한 이래 2013년 현재까지 모두 18회의 시험을 실시했고 오는 5월에 제19회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4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외무고시와 교육임용고시의 자격시험으로 활용되면서 응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월에 제18회 응시자 수는 10만 5418명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문초서 과정, 초·중·고등 교원을 위한 교원연수, 공직자를 위한 국사전문교육과정 등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는 한국사의 국제적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한국사의 국제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을 시작했으며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역사자료 편찬 기관과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3년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20쪽에 보시는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사료의 연구·편찬·간행 사업 중에 신편 고종시대사의 편찬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기존 1977년 간행 고종시대사 사료적인 불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의 올해 추진 계획은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26쪽입니다.

첫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담당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46쪽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한국사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저희 국사편찬위는 이제 전공자를 위한 사업을 넘어서 일반 국민이 믿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사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국사편찬위원장님 짧은 시간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립특수교육원의 김은주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으로 특수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특수교육 연구·연수·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정원입니다. 교육전문직 26명,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17명 등 총 43명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조직은 총무과, 기획연구과, 연수과, 정보지원과 등 4개 과가 있으며 특수교육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보호팀 등 6개 팀을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51억여 원과 주요사업비 43억여 원, 총 95억 33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각종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그를 위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 현장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특수교육 최신 정보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국내외 세미나 및 학술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원 및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또 직무수행능력 신장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다양한 주제를 잡고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일반교원 또 특수교육 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른 교수·학습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장애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와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학생의 학령기 이후 자립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로직업교육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관련된 각종 연구, 우수사례 발표대회, 담당자 연수와 세미나, 워크숍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9월에 개봉된 영화 ‘도가니’ 이후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 인

권보호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하였고 교우의 성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서,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각 대상별로 개발하고 있고 장애학생 인권을 주제로 한 학교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대응·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장애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내년 실태평가를 위해서 올해 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기 이후 장애성인에게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장애성인 문해교육 자료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설립 19년째를 맞이하는 지금까지 한국 특수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저희 원의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학생과 가족들의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더욱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특히나 장애가 발견되는 영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은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교육연수원 서명범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연수원장 **서명범** 중앙교육연수원장 서명범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 성과, 2013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중앙교육연수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원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공무원,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공무원 육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기능 및 연혁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 공무원 및 교장, 교육전문직, 교사 등 교육공무원 대상 연수, 연수과정의 개발 및 연구, 교육 분야 각급 연수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1970년 문교부 소속 중앙교육행정연수원으로 개원한 이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세 차례 개편을 거쳐 올 3월 23일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쪽의 조직과 정원, 4쪽의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201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12년에는 집합연수 1만 2000여 명, 원격연수 10만 4000여 명 등 총 11만 6387명이 123개 연수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학습자 만족도는 교육과정 만족도가 2011년도의 89.2에서 91.7점으로, 강사 만족도는 89.3점에서 92.3점으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2012년도의 특색사업으로 먼저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연극 역할극 액션러닝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둘째 모바일 기반 스마트러닝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보급 및 시범과정 운영 등 스마트러닝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셋째 학습연구년 교사 특별연수 등 교육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도 연수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집합교육 53과정(120기), 원격교육 48과정(361기) 등 총 101개 과정(481기)의 13만 8314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신규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의 2013년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국가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정책 연수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장 교감 등 핵심 교육리더 대상 연수, 행복교육·창의인재 양성 실현을 뒷받침하는 현장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현장의 현안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수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둘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핵심·실용·소통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본교육과 실용적 전문역량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칸막이 없이 일하며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형 연수과정, 정책집행 결과의 피드백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서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무원의 소통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고품질 최신 원격 콘텐츠 제공, 모바일 기반 스마트러닝 교육과정의 확대 등 일과 학습의 병행을 실현하는 스마트교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도 교육연수원의 연수의 질 관리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교육연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대구 이전을 계기로 우리 연수원이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연수원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연수체계 개편방안 연구 등이전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원장님, 짧은 시간에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종원** 교원소청심사위원

회 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회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99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1쪽 중간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6인,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3쪽 상단을, 그리고 현재 임명된 위원 현황은 13쪽 붙임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청심사 업무입니다.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결정합니다.

6쪽, 소청심사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 설립 이후 6747건의 소청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25건을 접수하였고 이월 건수를 포함하여 처리대상 204건 중 1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청 청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용률은 2012년의 경우 46%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한 중앙고충심사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227건의 고충청구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립 이후 571건의 소송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2006년 이후 학교법인도 소 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송 제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의 경우 행정소송 승소율은 78%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교원소청 교육을 실시하고 결정 문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제교육원 하태운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사업 목표,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쪽 핵심사업 목표로는 GKS 국제교육교류 세계화, 외국어 공교육 지원 확대, 유학생 유치·관리 기반 조성, 재외동포 교육 지원, TOPIK/NEAT 시험 시행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1962년 재일동포 모국 수학생 지도를 위해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 국제교육을 대표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올해가 창립 51주년이 됩니다.

조직은 3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 정원은 75명이며 2013년도 예산은 958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GKS 지원·관리입니다.

장기 장학프로그램인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지원사업은 현재 22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국내 70여 개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고 지원예산은 등록금 및 생활비로 435억 원입니다. 또한 단기 장학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지원사업과 외국인 자비 유학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00여 명에게 생활비 등으로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가 주요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순수기초학문과 지역연구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56명을 선발하여 석·박사 학위과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전형을 통해서 24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국비유학의 기회를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한일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

견사업입니다.

우수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100여 명을 선발하여 일본 이공계 대학에 5년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일 양국 공동 부담으로 1400명이 일본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사업과 7쪽의 주요 국가 대학생 초청 연수사업, 한·인도 대학생 교류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육교류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 및 중국과의 상호교환 방문하는 사업으로 한일 중고생 교류, 한일 상대 국어 선택 고등학생 교류, 한중 중학생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개발도상국 기초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5개국 수요에 맞추어 예비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교육외교관을 양성하며 교육 원조 성과와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입니다.

그동안 90여 개 국가에서 124회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13개 국가 17개 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KOICA, KOTRA와 함께 개최하고 매회 20~30개 대학이 참가하며 한류 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과 상품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양한 유학생 유치활동 결과 현재 9만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제10쪽입니다.

우리나라의 IT인프라를 활용하여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국내외 인적자원 DB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학생과 국비유학생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장학사업 수혜자를 관리함은 물론 외국 유학생 동창회 구성 등 체계적인 후속조치와 인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에 외국 유학생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취업박람회를 KOTRA와 함께 주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외동포 교육 지원 및 한국어 보급사업입니다.

재외동포 교육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 운영, 재외동포 교육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외국민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금년에 95개 국가, 총 66만여 권의 교과서 및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한국어능력시험입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능력 평가를 위해 61개국, 194개 지역에서 연 4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 바람 등에 힘입어 지난해 15만 100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외국어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에 배치할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선발·연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영어 사용 국가 7개국으로부터 1500여 명을 선발·훈련시켜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입니다.

영어권 대학생 500여 명을 과거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영어봉사 장학생으로 선발,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배치시켜 소외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14쪽, 한중 교사 교류사업입니다.

중국 교사 250여 명을 초청하여 국내 초·중등학교에 배치하고 우리는 50명의 교사를 중국에 파견,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토익, 토플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체개발한 시험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국가영어능력평가 1급 시험을 준비·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회 시험을 실시하며 2015년도부터는 매월 1회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 운영으로 7개 부처 13개 사업을 지난해부터 우리 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2600여 명입니다.

우리 원은 지난 50여 년간 수행해 온 국제교류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년도 행안부 기관평가에서는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제교육 수요를 적기에 발굴·수행하여 세계 일류 국제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하태운 원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학술원의 최진명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최진명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최진명입니다.

학술원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기타 사항입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학술원의 설립 목적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학술원은 1954년에 개원되었으며 내년 2014년이면 60주년이 됩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술원은 회장, 부회장, 인문·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 등 2부, 11개 분과와 사무국 조직이 있으며 학술원 회원은 정원 150명 중 현재 140명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59억 5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은 논문 또는 저작이 우수하여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매년 6명 이내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2012년에는 5명을 시상하였고 올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쪽의 학술세미나 개최, 9쪽의 국제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10쪽의 한일 학술포럼 개최와 국제학술교류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사업은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7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의 기초학문 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지

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연구소 등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 발전과 출판 및 저술 활동을 도모하고자 2002년도부터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원액은 26억 9000만 원이며 299종을 선정하여 9월에 보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동일한 예산 규모로 300종 내외를 선정·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16쪽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17쪽에서 23쪽까지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최진명 사무국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우선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주호영 위원 위원장님!

○유기흥 위원 아, 지난번에 인사 안 하셨어요.

○위원장 신학용 예,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 저희 교문위로 사·보임 새로 하셨는데 인사말을 못 했습니다.

환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호영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내일 현재소장 청문회가 겹쳐 있어서 양쪽으로 다녀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마침 상임위 개편으로 교육위와 문광위가 합쳐져서 저로서는 참으로 좋은 위원회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교육적이고 문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최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의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민주통합당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특히 모든 학부모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학교폭력 문제와 학생들의 자살이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박근혜정부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정상화’로 잡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실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학교교육이 이렇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나친 경쟁교육에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난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이 지나친 경쟁교육을 오히려 더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자율과 경쟁을 모토로 하는 이런 학교교육이 오히려 이제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하는 설정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목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육부의 업무보고 듣고, 그리고 또 교육부가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 국정과제를 다 훑어봐도 이렇게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상화대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교육현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체적으로는 중학교 단계에서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이 지금 말하자면 교육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리고 학교가 붕괴되는 교육 현장은 고등학교입니다. 저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금 치열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명박 정권에서 고교다양화 300 정책에 따라서 대학 서열 못지않게 고교 서열화가 심각하게 됐지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사실은 학생들 자살 사건이 중학생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고교다양화 300 정책에 따라서 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 결과입니다. 고교 서열화에 따라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아주 극도의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가 훨씬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가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슬럼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고교다양화 300 정책에 따라서 지금 고교 서열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장관이 알고 계시니까, 모르고 계시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것, 그리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의 핵심에 이 고교 서열화가 있는 것입니다.

고교 서열화가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선행학습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 선행학습 막으려고 지금 법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정작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정책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이런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있고요.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해서 다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부의 업무보고 한 내용을 좀 보니까 대신 공약집에서 많이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고교 서열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2017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정책이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공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평균 수준 목표 연도를 대략 20년도로 정했습니다. 아주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이렇게 해서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핵심적인 고교 서열화는 아예 언급도 없고,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20년까지 이렇게 늘려 잡아 가지고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누차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목표연도를 아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공약에는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표연도를 아예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신학용**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 예.

이런 식으로 핵심은 비켜 가고 중요한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공약에 대해서 대폭 후퇴하는 이런 것으로서 어떻게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장관, 대답해 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지금 도대체가……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저희 생각에는……

○**김상희 위원** 이렇게 지금 세월아 네월아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상희 위원** 학교 현장은 시급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연일 자살하고 있고 학교폭력으로 피해 받고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정말 무사태평으로 하고 계셔도 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재 위원** 인천 출신 이학재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 상임위 시작 때 존경하는 유기홍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도에 의해서 재벌가의 자녀라든지 또 전 국회의원의 자녀라든지 이런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 현장에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상식이 좀 더 통용되는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자녀 교육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부모들의 욕심이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여기에 사회적 취약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줄 때에는 반드시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계층이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취약하고 그 대상자가 경제적으로도 취약할 때만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학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 선발에 이런 것이 없으니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고등학교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보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열악한 대상자들이 실제 입학할 때도 적응을 잘 못해 가지고 전학을 간다든지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학재 위원** 기왕 제도 개선을 이렇게 마련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국립인천대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 18일 날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립대 전환을 하면서 그런 어떤 목표에다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예산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지원도 굉장히 소극적이기도 하고 또 국립대로 전환이 됐으니깐 중앙정부에서 뭘 해 주려니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그런 피해가 다 학생들에게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새롭게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또 국립대로 전환된 만큼 인천대가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대학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대에 대해서 좀 더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당국에서 당초에 국립

대 법인화로 전환을 할 때 약속했던 사항을 이유로 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정상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나 인천대학교가 거점대학인데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관심 갖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다음은 대한민국 바로 알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21종 중에서 15종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표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16억 원 가까이, 약 한 8%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나 영토주권사업이 한 8억 원 정도, 20% 가까이 이렇게 감소를 했거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땅 지키기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금년에 이 부분의 예산 8억 원이 감액된 것은 독도체험관 건립 예산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저희가 독도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또 지금 우리 독도와 관련된 사회과나 역사 선생님들, 국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실제 독도를 방문하시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독도에 갔다 오셔서 체험을 하고 그 느낀 소감을, 전 국민이 다 가면 좋지만 특히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 다녀오시는 것이 교육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에 삼십 분 정도가 다녀오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도 긴급한 것은 좀 반영했

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학재 위원** 마지막으로 마이스터고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이스터고가 올 졸업생 중에서 2월 1일 기준으로 취업률이 92%입니다. 입학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 취업한 아이들이, 졸업생들이 병역 문제로 실직을 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도태되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학재 위원**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데도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이학재 위원** 게다가 이게 지금 생산이나 제조 분야 여기로 국한이 돼 있는데 연구개발 분야도 포함을 좀 시키고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돼야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여태까지 교육 받은 것에 전념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주 완산갑 민주당 김윤덕입니다.

먼저 저번에 인사드렸었는데 문방위에서 우리 교육문화위로 옮기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건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의 핵심 요지는 지역대학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 MB정부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하고 그럼으로써 지역대학 발전이 굉장히 후퇴한 그런 5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회귀해 버린,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대학이 더 뒤처지게 되고 수도권 대학의 집중현상이 강화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이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대명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WCU 및 BK21 후속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대학, 지역대학 육성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WCU 및 BK21 사업 평가를 보니까 지역대학의 어떤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된다는 문제 인식이 평가에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 그 후속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 규모, 사업 규모를 보면 크게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BK21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후속사업계획을 마지막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방대학,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저희가 고등교육정책의 기본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BK 사업이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학원 부분이 좀 약한 지역대학이 아무래도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대학 육성대책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지금 우리 BK21 플러스 사업이라고 명명된 이 후속사업이 제가 모 언론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대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 발전의 큰 줄기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지방·지역 대학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활을 걸고 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1유형·2유형·3유형 해서 예산 분배 비율을 보면 지역대학에 편중되는 게 30% 정도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예산으로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했던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대학 육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뿐이고, 서류에만 있고 실제로는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BK21 플러스 사업이 지금 2013년 되던 곧 시작이 돼서 예산 배분이 되어 가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역대학에 할당하는 액수를 늘려야 된다, 현재 지역대학과 서울지역 대학의 인구 구성을 보면 55 대 45 정도로 지역대학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지역대학이 더 많은데 예산은 서울로 간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들 또 우수한 교수들이 서울로 몰릴 거고, 그렇지요? 다음 평가할 때는 우수 인력 확보 또 우수 교수 확보 이런 문제가 평가 배점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악순환이 되겠지요.

이 악순환 구조로 계속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지역대학 육성이라고 하는 과업을 달성하는 핵심적인 고리는 1차년도부터 지역대학에 배분되는 예산을 높이는 것, 이것 당면해서 반드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을 좀 분명히 장관님께서 인식하시고 수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오늘 자료 보니까 '지역대학 특성화 육성' 해서 2013년 6월 달에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또 법도 고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육성방안에 대해서 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서남수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동부권에 유일한 대학으로 서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서남대학교 이사장이 어떤 부패 비리로 구속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태에 따른 교육부의 입장이 상태에 따라서는 폐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

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 폐교한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현재 남원 지역 및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어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고를 한 상태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후속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남원 지역에서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또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가지고 그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방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현재 알고 계시지요? 이 서남대 사태가 생기기 전에 서남대 학생, 그다음에 교직원, 동문 그리고 남원 시민까지 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또 국회에서도 국정 특별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서남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제1번의 책임은 부패를 행한 그 이사장, 운영진에게 있겠지만 저는 교육부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책임성 있는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보더라도.

또 하나는 현재 지역의 어떤 문제점, 사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 대학의 존재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말고 정치사회적인, 저는 삶의 총체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우리 장관님께서 정확히 인식하셔서 가지고 서남대 사태를 단순히 폐교해 버리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거고요. 또 최종 결정하기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결정 전에 반드시 우리 국회와 의논해서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주호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교육이 우수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한 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것 참 이상하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육을 불신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늘 지적을 하고 이러는데 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우수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장관이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 교육의 우수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교육제도라든지 교육방법에서 잘하고 있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무엇보다도 아마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인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학업성취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그렇게 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PIS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비교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아마 아이들의 학업성취 수준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학업성취 수준은 우리가 너무 암기식 교육 위주다, 창의교육이 부족하다, 그래서 갈수록 좀 떨어진다는 이런 평가를 국제적으로 오히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의 성과이기는 한데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어떤 학업 흥미도라든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저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도 그와 깊이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 쉽지는 않지만은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한국 교육을 칭찬하는지 혹시 들어 본 적이냐 들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은 말씀하실 때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주호영 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교육제도,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또 따라서 자주 바뀌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평생을 교육행정에 종사하셨는데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 두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왜 고쳐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장관의 복안은 어떤 건지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일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정서적으로나 지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균형 있게 잘 발달하는 쪽에 교육목표가 두어져야 하는데 시험점수만 높이는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경쟁, 더 높은 경제·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이 교육부문으로 전부 다 집중이 돼 가지고 학교경쟁에서 그런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런 시험 위주보다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주호영 위원 거기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인 복안은 뭐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 와도 안 됐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인식이나 학부모 인식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장관으로서 재직 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비전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정말로 학생들 개개인의 꿈과 끼를 찾아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조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한 정책적 접근보다는 모든 우리 교육정책의 전반 분야에서 그런 방향으로 보완하는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20년간 고3 학생들의 키는 평균 6cm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은 평균 10kg쯤 다 늘었어요. 그래서 체격은 이렇게 많이 신장되고 늘었는데 체력이나 체질은 대단히 후퇴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고3 학생 10명 중의 7명이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청소년기의 체력이나 건강상태가 평생 체력이나 건강을 좌우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 가 보면 비만 때문에 국가적인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청소년기 학창시절에 이걸 잘 잡아 주는 것인데, 오히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입시에 체력장도 들어가고 이래서 강제적으로라도 좀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훨씬 약해졌거든요, 아파트 생활하고 이러면서? 나머지 모든 교육 못지않게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챙기는 이런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놓은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증진학교 건강증진모델, 이것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체력이 정말로 미래 우리 국민의 건강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말로 학생시절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건강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다목적적으로 학교에서 체육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할 생각인데, 다만 제 생각에 체육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스포츠클럽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쪽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늘어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주호영 위원 하여튼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장관님 재직 중에 학생들 학교체육, 건강문제 이것 좀 해결됐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교원평가제, 평가제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과가 있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원평가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 평가제 이후에 퇴출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원래부터 이 평가제도는 선생님들 퇴출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요, 선생님들의 능력개발을 신장하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퇴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해서 퇴출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는 큰 성과를 거뒀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호영 위원 제 개인경험인지 보편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말하자면 수업의 질, 교사의 질이 참 실망스럽고 문제 되는 경우가 한두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선생님이 되면 정년까지 가는 겁니다. 아주 우수한 선생은 다른 데 스카우트라도 돼 가서 자리라도 비지마는 능력 없는 선생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한 30년, 40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우리 고전 찾아보면요, 잘못 알고 있는 선생, 잘못 가르치는 선생을 거의 죄에 가깝게 비유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당국이 그 점에 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은 문제지마는, 교육단체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정책방향도 다르지마는 교사의 질을 높이는 강제적인 방법 그리고 나태하거나 문제 있는 교사들을 배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또 장관 새로 취임하시고 이제 이런 유의 질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조례 재의요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시절에 시·도 교육청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시고, 지난 인사 청문회 때도 이와 관련한 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장관께서도 시·도 교육감하고 잘 협조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역할분담 잘해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장관 임용되고 청와대 업무보고 끝나고 첫 행보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입니다. 이것 깊이 있는 대화 나누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직접 대화……

○김태년 위원 고민만 하시고 대화는 안 나누셨구먼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대화도 나눴습니다마는……

○김태년 위원 보세요, 지난해 9월에 이거 입법 계획 세우고 두 번 설명회 하고, 두 번 공청회 하고 토론회도 한 번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의견도 받았고 관련 변호사들 자문도 받았고 또 도의회 심의과정이 아주 심도가 깊었어요, 제가 알기로. 제 지역구에 이 교육위원이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78% 정도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엇그저께지요. 4월 5일 관보게재 요청을 했는데, 장관님 30년 넘게 공직에 계셨으니까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경험을 말씀해 보세요.

4월 5일 날 관보게재 요청을 했는데 4월 4일 밤 10시 45분에 팩스로 경기도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했어요.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경우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만큼 깊이 고민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4월 5일 날, 4월 5일이면 관보가 이미 인쇄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날 밤 10시 45분에 재의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며칠 전부터 지금……

○**김태년 위원** 이런 경험 없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경험 없으시지요? 이런 경우 없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얘기를……

○**김태년 위원**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1시간 15분 전에 재의요구 요청한 게 있었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경기도교육청에는 하여튼 4일까지 최종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그 이전에도……

○**김태년 위원** 재의요구 사유를 볼게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6조와 19조 관련해서 법률 위임 없이 사학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제9조 정관 작성의무의 일률적 부과, 제12조와 14조 행·재정 지원에 대한 부당결부금지 위배 소지, 제5조 사학지원협의회는 자문기관의 한계 이탈, 이걸 지적을 하셨어요.

한 개씩 한번 따져 보지요.

제6조, 불법이나 부정으로 인한 관할청의 행정처분을 학원이나 이사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겁데요. 이건 학교하고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핵심기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건 꼭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교육부 입장이 불법이나 부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은폐하라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제

가 따지는데, 답변을 하십시오.

사학기관의 투명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정장치 이걸 왜 교육부가 반대를 합니까? 왜 이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 제19조 시설공사 준공검사단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한 것, 교직원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하는 게 지금 우리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기본방침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장이 단순히 협조하라는 건데 이걸 왜 시비를 겁니다? 이게 잘못됐나요? 투명하게 운영하라 이게 잘못됐나요?

세 번째, 제9조 정관변경,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정관에 정하라고 한 것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법령으로 정한 것을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해라, 왜 이게 문제가 돼요? 정관의 변경사항이 오히려 법령에 위배될 때는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을 정관으로 정해라,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정관으로 정해라, 왜 이게 문제가 돼요?

12조·14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 이렇게 보는 것, 12조의 경우에는 교원 전형 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립학교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행정지도의 방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당히……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정책적 지향에 대한 포괄적 인센티브를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지금 우리 교육부에도 수많은 인센티브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모든 인센티브 정책 이걸 다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건 부정되고 어떤 건 허용되고 장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학지원협의회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상위법하고 충돌하지 않으려고 애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사학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사학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교육부가 재의요청 신청을 한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자주성과 공공성과 관련해서 자주성을 침해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자주성을 침해한 구체적인 사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정했는데 사학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부당하게 여러 가지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벗어난 게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법적인……

○**김태년 위원** 어떤 겁니까,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부장관 서남수** 여기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그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법제처 심의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법제처는 사전에 초안을, 이걸 가지고 심의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제정할……

○**김태년 위원** 이런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법제처에다 심의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법제처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련된 이 조례안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태년 위원** 지금 보고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다른 내용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요.

이게 행정법 일반원칙을 오히려 교육부가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유독 경기도교육청에만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거 행정법의 일

반원칙 중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고요. 법제처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았던 심각하지 않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재의요구까지 했으니 이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고, 그다음에 교육감들과 충분히 대화와 협조를 하겠다 해 놓고 밤 10시 45분에, 1시간 15분 전에 재의요구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이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거 다시 재검토,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께서 저희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전임 장관 때 시·도 교육감들과의 갈등 가지고 소송 걸린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도 교육청하고 이런 갈등관계 유지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장관이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외부 압력 받아 가지고 재의요구했다,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외부 압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없었습니다.

○**김태년 위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재의요구를 해 놓고 외부 압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사학단체들이 상당히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이 좀 더 낮게 나아가려면 좀 더 화합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을 모아 가면서 교육정책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달라 하는 요구를 내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심한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심을 어떻게 했는지.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강은희 위원 새로운 교육부 출발의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방금 경기도의회에서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관련해서 교육부의 재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같은 내용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은 당초 법제처의 심의를 거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내용으로서는 당초 법제처에서 심의한 내용과 실제 조례가 제정된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도 ‘민주적으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 내용에서는 교육기관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사학운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5항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교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책사업 추진의 방향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검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가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경기도에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이유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사립초중고교법인에서도 반발하는 이유가, 양쪽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학은 지금의 인식에서 비리가 자주 도출되다 보니까 사학 전체를 마치 비리집단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학이 교육에 헌신해 왔고 교육적 공로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이런 법 조례가 개정될 때는 사학단체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학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언제나 교육현장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분야를 조례를 포함해서 어떤 법적인 규정이나 규제를 통해서 하려다 보면 언제나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보다 그 부작용이 더 큰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학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마련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각 교육현장과의 대화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의 교육청인 교육감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 사학단체, 사학 실제 운영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 법의 문제점, 개선점 이런 부분을 다시 제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 대입전형이 A·B형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여기에 관해서 일부에서 수준별 수능의 시행을 유보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이미 3년 전에, 2011년 1월에 예고된 사항이라서 시행 유보는 불가하고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입시에 적용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어떤 형태든지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혼란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또 학교 현장에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러한 혼란이 다시 재논의되지 않도록 충분히 알려 주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추진되었을 때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의 연합학력평가가 3월에 이미 시행이 됐고 앞으로도 3회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은 새로운 입시제도가 적용됨으로 해서 진학지도·입시지도를 할 때 데이터가 바뀔므로 인해서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많은 정보, 컨설팅 회사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움직이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저희가 모의시험을 실시하거나 한 뒤에 그 결과를 각급 학교가 전부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모의수능을 치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좀 전에 업무발표에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해서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좀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기간제 교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지금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만 8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담임을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물론 기간제 교사 중에서는 명예퇴임을 해서 다시 기간제에 임용되는 경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신입 교원들이 기간제 교사에 많이 임용이 되어서 담임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지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현실적으로 보면 교원들 중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규 교원 중에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교사가 담임교사를 맡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원 정원 확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저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민한 흔적은 지금 현재 그게 법률에 좀 위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내부 의견 진행 과정 그런 것을 좀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 요청한 겁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도종환입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5대 영역별 국정목표 중에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이게 설정돼 있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핵심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부모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또 언론 이런 데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 자유학기제 도입이 교육 내부에서 계속 요구되고 또 그다음에 준비되고 논의되다가 실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국면에서 공약 중의 하나로 설정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다기보다는요, 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행복감을 높여 주는 그런 학교 운영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아이디어로 제시가 됐고……

○도종환 위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우선 37개 학교 내외를 연구학교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정해졌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거의 내정된 상태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 학교를 받아서 확대 실시해 본 다음에 2016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모델이 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경우에도 74년부터 시작을 해서 30년 정도 되었을 때 비로소 한 70% 정도가 희망을 하고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1~2년, 2~3년 해 가지고서 전면 실시 가능할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본적으로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가 자유학기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참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자유학기제하고 아일랜드 그 케이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지금 준비기간 중에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도종환 위원** 학기제로 할 거지요, 학년이 아니고요? 아일랜드처럼 한 학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4학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기를 하실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한 학기를……

○**도종환 위원** 그러면 1학년 2학기를 계획하고 계세요, 2학년 1학기를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보면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쪽을 주장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운영기간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운영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도종환 위원** 아일랜드의 경우에 중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5학년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탄력적 학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탄력적 학년제까지 고려하고 있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는 학년 칸막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것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교사들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선생님들 중에는 정권이 바뀌면 재량학습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때 그때 어떤 새로운 아이тем들이 주어졌다가 정권이 끝나면 다시 유아무야 되는 경험들을 수십 년간 하셨기 때문에 쳐다보고 관망하면서 또 냉소하면서 ‘하라면 시범학교에서 한 번은 해 보지 뭐’ 이런 형태로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관망하는 그런 선생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요일별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학기 전체를 진로 체험활동을 할 건지, 교과와 연계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선생님들은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신학용 위원장, 김세연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는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다른 유사한 정책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2년 반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도종환 위원** 그 2년 반 이상의 준비과정 중에 분과형 교육에 익숙한 교사들한테 통합교과형 교육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이 다 준비가 될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연구 시범학교를 통해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종환 위원** 학생들은 또 경쟁교육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협력학습으로 진행돼야 되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교사들은 팀티칭 또는 통합교과형 교육과정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의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또 있거든요. ‘평가를 안 할 것인가, 평가에 반영을 할 것인가, 반영하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평가를 발표하는 형태가 있을 테고, 가서 체험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형태가 있을 테고, 써 내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평가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평가를 안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했다가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할 거란 말이에요. 성적이 떨어지는 통계 같

은 것도 PISA에 보면 있고, 그럴 경우에 일본처럼 교과와 연계한 체험 진로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는 교육과정을 완전히 떠나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실험을 할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의 틀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위원** 체험활동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서, 평가에 반영한다는 말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본다는가, 교사가 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해 본다는가 또는 은행에 취직해서 뭘 한다는가, 병원에 가서 뭘 체험을 해서 의사가 될 꿈을 키운다는가, 목공을 해 본다는가, 미용을 해 본다는가 같이 공동체 활동을 나가서 해 본다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할 경우에 아일랜드 같으면 TY를 운영하면서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현장에 나가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경우에 기업에 나가거나 어디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도리어 그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지역사회의 협력도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한데 이런 데 대한 준비도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기간 중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로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것을 한 1~2년 동안, 2~3년

동안 해서 충분하겠다고 지금 장관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충분하다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교육기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연구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정책적인 비중을 높여서 연구를 하면 실행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책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혼자서 다 이것 방어하시려니 힘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충분한 답변 되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쭙 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주로 대학생들이 되겠지만 1년 동안 해외어학연수비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학에 가서 가지고……

보통 전년도를 보면 거의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사교육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교육 시장에서도 보면 원어민교육을 위해 가지고, 공교육에서도 지금 많이 같이 이렇게 인발브(involve)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성호 위원** 사실 이 영어교육 성공 사례적인 국가가 핀란드라고 보고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영어를 잘 가르치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전체가, 우리 같으면 EBS 방송이지요. 대한민국 교육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만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역사 이야기에서 세종대왕·이순신이라든지 단군신화도 그렇고, 전래동화도 마찬가지로 인성교육과 역사교육을 같이 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어학으로서 대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양면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핀란드식 영어교육 방식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EBS를 잘 활용하면 정말 많은 교육비를 줄여 가면서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2~3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그 TV를 보고 혹은 방과 후에 같이 보고 교육방송 재방송 시간을 가르쳐 줘서 보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학교에 와서 자기들이 서로 영어로 토론을 하고 선생님이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서 소위 이렇게 고쳐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EBS 교육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영어교육 시스템을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사실은 애초부터 EBS 교육방송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취지를 좀 더 구현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상당히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EBS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이용해라'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더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꿔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총괄적으로 EBS 방송이지만 지방에는 지역방송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역방송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핀란드는 지금 중국이 워낙 부상하다 보니까,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자원 강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실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자기들이 중학생쯤 되면 중국에서 별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인근 국가가 중국인데 앞으로 중국어 교육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교육부장관 서남수 정말 저는 앞으로 세계화

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동향이나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긴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어 교육이나 제2외국어 교육에 아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장관님!

그래서 추상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개념보다도 실질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대학을 졸업한—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대학 중국어과·중문과를 4학년 졸업한 학생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실력 정도가 전체 30%밖에 안 됩니다. 그것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택적 사용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은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고개를 끄덕임)

○박성호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1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자, 아까 우리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체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큼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즘은 문화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영어, 방과후 체육활동 그다음 수업시간에 체육활동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냥 운동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골프선수들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성 선수들이 세계를 날리지만 전부 영어를 다 잘하지요. 영어를 필수로 하지 않으면 안 받아 주니까.

자, 그렇다면 체육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육에 대해서 영어를 구사하면서 체육활동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교원 양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구 시합을 하게 되면 농구를 전부 영어로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패스할 때까지 모든 용어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환경에서 영어가 생

활화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런 교원 양성을 일부 지금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것을 활용하면 영어교사를 또 충분히, 이렇게 일자리 제공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대학에서도 옛날에는 영어 일반으로 했는데 최근에 영어교육을 하는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과 관련된 영어라든지 여행과 관련된 영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영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를 해서 영어교육하고 전공을 연계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깊이 생각하셔서 가지고 강하게 활성화 좀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태윤 원장님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재외동포 교육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위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예.

○**박성호 위원** 그래서 95개국에 66만여 권의 책을 갖다가 보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재외동포가 퍼져 있는 국가가 몇 개 국가쯤 됩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저희가 한 140여 개, 숫자 한두 명까지 다 합치면 140여 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성호 위원** 제가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66만 권을 보급하려고 하면 그 책을 구입해서 보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저희가 일부는 제작을 하고요. 또 보통 교육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에 제작된 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66만 권을 수송은 어떻게 합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저희가 대부분 지금 DHL이랄지 그런 수송기관도 이용을 하고요. 또 전문 수송기관을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예산이 한 25억쯤 되는데 실

질적으로 66만 권의 책을 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송하는 데 컨테이너 한 박스에 돈이 얼마인데요?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예, 수송비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 25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가능한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저희가 지금 25억을 가지고 대부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기 수송 문제가 있어서요, 항공기로 하느냐 선박으로 하느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항공기는 비싸서 할 수가 없어요. 선박으로도 보통 보면 컨테이너 작은 것, 4분의 1 정도 되는 게 한 400만 원 단단 말입니다, 인근 중국만 가더라도. 그런데 저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 텐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쭙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예산이 25억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저희가 이 예산으로 66만 권은 올해도 다 충당을 해서 이미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초반 학기에 맞추기 위해서요.

○**박성호 위원** 하여튼 정말 확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한데……

또 하나는 사실 700만 재외동포가 있는데 이 700만 재외동포들이 지금 현재 1명, 2명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쪽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예.

○**박성호 위원**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데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지 제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世淵** 예.

○**김태년 위원** 아까 제 질의 바로 직후에 강은희 위원님께서 관련 질의를 하셔서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신상 발언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예, 해 주시지요.

○**김태년 위원** 아까 강은희 위원님께서 사학을 범죄집단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럴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강은희 위원** 김태년 위원님보고 한……

○**김태년 위원** 아니, 물론 압니다. 그런데 바로 저에 이어서 한 발언이라서……

○**委員長代理 金世淵** 일단 신상발언 신청하셨으니까 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저도 많은 사학 관계자들을 만나 봅니다만 설립 초기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헌납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또 지금은 정부 지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과거에 정부 지원이 전혀 없을 때도 교육적 열정만 가지고 아주 어렵게 교육에 헌신하셨던, 사학 설립하셨던 분들의 교육에 대한 기여 저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립학교들이 설립한 지가 오래되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립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항상 뒷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최소한의 지도 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공공성을 강화해서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조례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던 건데 마침 바로 제 뒤에 이어서 강은희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셔서 제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아까 장관께서 법제처 심의를 초안 가지고 했었는데 초안에 이 관련 내용이 다 들어 있고,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법제처 지적사항은 다 제거가 됐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 하나만……

○**委員長代理 金世淵**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청 하시지요.

○**유은혜 위원**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외동포 한글학교 지원 관련해서요, 조금 구

체적으로 지금 하고…… 여기 자료에는 총량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예.

○**유은혜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각 나라별……

○**유은혜 위원** 예, 나라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알겠습니다. 곧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위원장님과 아까 상의된 바와 같이 12시 30분경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리사 위원님, 지금……

○**이에리사 위원** 예, 하면 좋고……

○**委員長代理 金世淵** 오전에 마치시겠습니까?

○**이에리사 위원** 예.

○**委員長代理 金世淵**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그리고 이에리사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이에리사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저는 작년 1년 동안 국회에 들어와서 교과위에서 일하면서 참 막막함을 많이 느꼈고 저 자신이 굉장히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일단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고 새로 오신 우리 서남수 장관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큼니다.

지난번에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 교육청과도 대화의 장을 열겠다’라는 취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데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의 퀄리티가 차지하는 부분이 통상 교육정책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매우 크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훌륭한 교사를 많이 뽑고 또 훌륭한 교사를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사의 현재 신분은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국가공무원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직이라고 한다면 이 채용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책임인데 그것이 시·도 교육감에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임이 되어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위임이 되어 있으면 교육부는 그냥 손을 놔도 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닙니다. 원활한 임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용시험 출제라든가 채점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워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 임용시험이 비록 위임은 되어 있지만 개별 시·도 교육청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또 평가……

○박혜자 위원 시·도 교육청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한 2년여 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제로 수능시험 등 원래 교육과정평가원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교원 임용시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을 주니까 이 부분은 시·도 교육감님들이 따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시·도 교육감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운데 시·도 교육청한테 미루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그동안에 정책연구를 통해 가지고 시·도 교육감들께서 일종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교육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시·도 교육감……

○박혜자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박혜자 위원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 보면 지금 주요사업으로서 여섯 가지 업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가지 업무 중의 하나가 국가고사입니다. 그래서 교원임용고사라든가 선발고사 이러한 것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원래 교원임용고사는 고유업무라기보다는요, 교육감님들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박혜자 위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업무는 고유업무가 아닌데 6대 사업으로 지금 홈페이지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 국가고사 업무를 시도에 위임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현실로 볼 때 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을 해 주는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금년도는……

○박혜자 위원 금년도는 하시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교육감님들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금년 중에, 내년도에 가 가지고 그것을 논의해 가지고는 너무 때가 늦으니까 금년도……

○박혜자 위원 서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동안에 이러한 교사임용에 대해서 고사 또 출제라든가, 출제도 사실 논술식으

로 바뀐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논술식으로 바뀐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실제 시·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교육감님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박혜자 위원** 당장 내년이라고 해도 1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KICE에서 담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 하든 어찌든 그에 대한 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하여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계속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실제 예산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보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산도 지금 시·도 교육청으로 위임할 경우에 120억에서 200억 가까운 돈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혜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도 교육청에서 뽑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유치원 교사의 문제도 여기에서 담당을 해 왔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실은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원이 추가적으로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추가적으로 정원 늘어서 이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소송이 제기가 돼 가지고 추가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선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1심에서 사업공고가 난 이후에 시도별로 정원을 늘리게 되면, 모집인원을 늘리게 되면 수험생들이 미리 선택을 할 때 그 사항을 모르고 선택했을 때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실 예정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항소는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항소는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지금 장관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추가 시험 공고를 해서 추가로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러니까 그 재판결과를 봐 가면서 거기에……

○**박혜자 위원** 아니, 재판결과가 1심은 나왔고 또 항소하셨잖아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소결과에 상관 없이 이번에 추가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는 추가 공고를 해서 추가 모집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데 일단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박혜자 위원** 항소와 관계없이도…… 지금 지난번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똑같은 사례지요? 그래서 특수교육의 경우에는 추가로 새로 뽑았어요, 공시를 해서. 그런데 유치원 교사인 누리과정

에 대해서는 불가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 지금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추가 시험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에 응시할 예비 교사들에게는 추가 기회를 기다리도록 저희가 응답을 해도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박혜자 위원** 아니요, 소송해서 1심이 나왔고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험을 추가로 하게 하려면 소송을 취하해야 된 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혜자 위원** 아니, 2014년도 임용인데 지금 추가하지 않고 또 재판의 결과를 보고, 항소해서 나중에 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래, 추가 공고해서 추가로 뽑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재판……

○**박혜자 위원** 그것은 지금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고 추가 공고를 하셔서 추가 임용기회를 부여해 주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지요.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장관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16페이지에도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초등학교 전담교사 문제, 지금 아마 6월 달에 모든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체육교육 강화로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신규 배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천방안으로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전담교사 신규 임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였고 실천방안으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방안 마련 등을 발표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대선 직전 혹은 그 이후에 교육부 담당자들하고 두 번 내지 세 번 업무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장관 내정자로 청문회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이 초등학교 교실이 심화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 있는 사람만 우선 배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생각의 전환을 갖지 못하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년도, 2013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 합격자가 남자가 14%, 나머지 86%가 다 여자 선생님들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고, 햇빛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여성 선생님들한테 그런 체육활동을 맡기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가 우수한 사람들을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시키고 보충을 시켜서 초등학교 전담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신다면 아마도 공약안의, 국가대표 혹은 실기가 우수한 그러한 인력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공약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장관님께서 내정자 때, 그때 저한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기억합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잠정적으로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는 방침을 보니까 신규 교사, 기존 교사 중에서 체육심화과정 이수자 또는 체육관련 대학원 졸업자, 체육관련 전담교사 2년 이상 경력자로만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어떤 확정 발표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이에리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부는 1년 전보다 지금 조금도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1년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혹은 3개월 전에 저하고 업무협약, 이 체육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공약이 검토되는 과정에서부터 개입을 했고 이 부분을 해달라고 요청한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 불만스럽습니다. 1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조금도 한 치의 변화된 그런 입장이 안 되는, 똑같은 입장만 내놓는다면 국회의원이 체육대표로 와서 체육에 관련된 거를 교육부하고 업무를 협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에 공감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6월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할 텐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예외적인 사항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교과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리사 위원** 그거는 저는 예외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첫째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것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공약을 지켜야지요. 공약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이 업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것, 그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체육현장에 나가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시켜서 내보내 달라는 거지 운동 잘했다고 그래서, 실기 우수하다고 그래서 그냥 내보내겠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내보내 주는 것이 저는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부가 가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셔서 국가를 위해서 애쓴 그러한 고급 인력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비인기 종목에서 정말 메달도 못 따고 애쓴 그러한 실기가 우수한 사람들이 우리 2세대, 3세대한테 가서 정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같은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여학생을 위한 ‘여학생스포츠클럽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학생들을 위한 창의적 체육활동이라든지 방과후스포츠 또는 주말스포츠 이럴 때마다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없으니까 여학생들만 특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여학생스포츠클럽 운영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여학생들만이 참여하는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에리사 위원** 저는 스포츠에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극히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스포츠라는 것은 같이 함께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것이지 여학생이라고 그래서 따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도무지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러한 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여학생 종목이 되는 소프트볼,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학생들을 위한 배려, 그러한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 간소화 문제를 지금 여기 거론하셨는데 대학입시 간소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년 동안 제가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제에 어떤 식으로든 체육활동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해 왔습니다. PAPS도 안 되고 있고 스포츠클럽 활동도 안 되고, 물론 생활

기록부에는 기재가 됩니다. 체육수업, 모든 게 다 기재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실 있게 가지 않는다, 대학입시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학입시가 간소화됐을 때 체육이 더더욱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부 방침에 간소화되면서도 이 체육활동이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나 혹은 대학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전형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체육활동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입학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것이 위축되거나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소화는 지금 한 3000여개가 된다는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중에서……

○**이에리사 위원** 지금 저하고 장관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당연히 지금도 활성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왜?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뭔가 포함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든지, 무엇이 어떤 조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처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투자하는 예산과…… 지도자를 파견하고 정책은 많이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교육부하고 저하고 협의한 내용들, 제가 요구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교육부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어떤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할 때마다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다’ 했는데 어떤 변화 있는 준비를 했는지를 제가 서류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보람이 있고 그래서 이 체육활동에 대해서, 대학입시에 대해서, 사정관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서류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앞서 공지드렸던 시간 일정에 다소 변경을 기했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넓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해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후에 잡혀 있는 여러 토론회나 우리 상임위 관련 행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렇게 변경을 좀 했으면 한다는 점 깊은 양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은혜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교육의 지난 성과와 한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들이 많고요. 우리 교육현실을 진단하면서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이나 복잡한 입시전형의 문제나 또 과도한 사교육비, 여러 가지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 위주, 성적 위주의 경쟁교육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진단하고 문제 인식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오늘 보고된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무엇을 도려내고 어떠한 새로운 정책들을 실현을 해야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율형사립고 문제나 또 국제중학교 이러한 문제들은 그 자체로 경쟁교육의 표현입니다. 교육 기회가 이미 불평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력경쟁이 부추겨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또 특히 그동안의 전면적인 일제고사 실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여기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험 위주, 성적

위주의 그런 경쟁교육이 우리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그동안의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하면 그것을 어떠한 구체적 복안을 가지고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좀 선언적인, 그동안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덧칠하는 이런 부분, 선언적인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유감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들, 보완책들을 좀 더 장관님께 요청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사립대학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대학 구조, 사학 비리 문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는데 사립대학과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장관님께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고 또 대안들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태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와 관련해서요.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지만 제가 죽 살펴보건대 그동안에 그렇게 4월 5일 날 공포를 앞두고 불과 1시간 전에 이렇게 다시 또 경기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신학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에서 3월 14일에 의결했었잖아요? 그러면 공포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고 그렇게 재의를 요구를 하시면서 했던 근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상지대 실태조사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상지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부분은 제가……

○**유은혜 위원** 지난번에 장관님 인사청문회 하면서 제가 상지대 실태조사 꼭 해 달라는 요청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지대를 비롯해서 구재단이 복귀한 사립대학들이 실제로는 국가장학금조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상지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안 한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 습니다.

○**유은혜 위원** 어쨌든 반값등록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정책적으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 상지대를 포함해서 조선대나 세종대 같은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에서는 지금 보니까 국가장학금, 그러니까 2유형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구재단이 복귀해서 상지대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립대학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계시지 않아서 이런 사립대학들의 비리나 부정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말씀하신 것 굉장히 간단하게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아주 굉장히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유은혜 위원** 물론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좀 심화됐던, 오히려 그런 경쟁을 부추겼던 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바꿔 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치는 이미 취했고요. 여러 가지 금년도에 앞으로 박근혜정부에서 해 나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월, 몇 월까지 이렇게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문제는 사실은 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워낙 관점이나 이해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는 아직 제가 구상해 내지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원만한 해결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파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되어 있고 또 성씨가 ‘현’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배고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괜찮습니다.

○**현영희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의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내시고 또 업무보고를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시간관계상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조례로 많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상 유상, 또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 먹거리가 우리 성장발달을 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며칠 전에 신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북에서 지금한 400여 명이 식중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일들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업무보고에서도 빠졌는데 이렇게 식중독이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식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은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 김치를 만들면서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썼는데 거기에 노로바

이러스가 감염이 돼 가지고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또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식품업체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관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물론 식품에 관련해서는 식품안전청과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특히 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도 식품안전청을 처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만큼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안전으로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가 그냥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아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조직이 되고 또 이렇게 장관으로 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먹거리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요 건강, 그렇지요? 먹거리와 체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작년에 식품업체를, 위반한 업체가 71곳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도·감독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자체가 활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급식 원부자재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 HACCP의 지정을 받은 그런 업체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그 구체적인 비율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영희 위원** 높은 게 아니고 지금 HACCP 지정받은 업체가 아마 정말 몇 %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식품 지정업체를 앞으로 HACCP에 지정된 이런 업체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도 해 주시고 또 적극 어떤, 법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꼭 우리가 식품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상당히 법제화 논란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34페이지 보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과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특별법 이게 어떤 관계가 돼 있는지 말씀……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속에 그 내용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선행학습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습입니다. 그런데 선행학습 자체를 법을 만들어서 금지한다고 하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항상 집에서 조금 예습 그다음에 정규수업 그다음에 마지막에 집에 와서 복습, 이 세 단계를 우리 교육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과도한 선행학습, 학원에서 1학년에 해야 될 것을, 2학년 걸 미리 배운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사교육을 조장시키고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이 법안은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각급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상급학교에서 입시를 보면서 아이들이 선행학습 그 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걸 출제를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도 공부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선행교육을 하는 것을 규

제하자는 얘기이지 학생들의 어떤 자발적인 선행 학습에 대한 규제는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조금만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선행학습입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꾸 앞에 더 배워서 배워서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첫째 학교의 시험 문제를 절대로 출제 문제에 선행학습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배운 내용 안에서만 시험이 출제되는, 즉 말해서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될 수 있고 또 평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정책을—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저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BS 교육을 많이 활용해서 그 속에서 한 번 더 다시 자기 공부한 것을 선행과 또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자체가, 솔직히 좀 무식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말 나오는 것 자체부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정책에서 더더욱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서남수 장관님 그리고 소속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世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부터, 지금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순서로는 박홍근 위원님, 정진후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연제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 상임위가 개편이 돼서 교육부와 문화부가 함께 저희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돼서 저는 다른 것보다 교육부, 문화부 업무 중 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인데요.

(교재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장관님, 이 교재 보신 적 있습니까?

‘세종한국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이 아마 이 교재는 못 보셨을 테고, 이 교재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하나는 이름 바뀌기 전에 교과부에서 만든 것이고요, 하나는 문화부 산하에서 만든 겁니다. 두 개 다 용도는 똑같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약간 용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희정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과부에서 만들었던 그 자료는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해외 동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요. 문화부에서 만들었던 자료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요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지금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외국인을 가르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

만 대상이 초·중등학생이나 성인이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외국에서 쓰여지고 있고요. 특히 문화부 같은 경우는 세종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교재가 아니라 해외에서 쓰이는 교재입니다.

혹시 그러면 교육부나 문화부 이외에도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 관여하고 있는 또 다른 부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외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제목이야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만 3개 부처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적어도 장관님께서 기본은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하는데 소홀히 하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부처 간의 협의 노력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정권 때 보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부처 간에 함께 하겠다, 통일해서 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 또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최근 들어서는 2012년 2월 13일에 한국어교육 통합 관련 관계부처 회의까지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대통령 앞에까지 보고를 했던 일인데도 통합이 안 되고, 지금 해당 부처 수장께서도 현황 파악 조차 미비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조금 다르고 또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희정 위원** 저는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부처가 달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이야 교재 수준을 한 부처에서 하더라도 1, 2, 3으로 나누어서 대상을 분리하면 될 일이지, 초·중등생은 반드시 교육부에서 하고 일반인은 문화부에서 하고…… 서로 교재 개발하는데만도 국민들의 세금을 각각 쓰고 또 보급하는

기관도 각각 다르다면 이 교육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 부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도 국무회의 시에 한글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안에 부처 교육 통합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고요. 대통령 앞에서 보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7개 부처 합동으로도 이것을 한 적이 있고요. 물론 그때도 교육부하고 문화부가 주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심지어 올 초에, 2013년도 문화부 보고에 따르면 문화부가 교육부와 함께 세종학당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한글 해외 교재 개발·보급, 교원 파견 등 유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중복 문제 발생을 해결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문화부 보고 내용이 일방적인 보고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교육부랑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거기 세종학당 정책협의회에 우리 부의 국제협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부에서는 그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책 협조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국회의원들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동북아권 나라하고 비교하는 얘기를 현지의 교포들에게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공자학당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중국이 확산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 교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힘을 합쳐서 교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글을 보급해도 모자랄 판에 각자의 교재를 가지고 각자 실적을 따지면서 일을 하는 게 참 보기 안타깝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국가는 한 국가의 집합체이지 부처를 따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장관님께서 오늘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장관님이 기존의 아주 초보적인 인식에서 ‘당연히 따로 가는 것 아니야’ 이런 수준을 벗어났으면 하

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3월 28일 대통령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보고드린 바가 있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업무보고서가 아무리 요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의 주요 골간인 대학 자구 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이 부분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더군요. 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지요.

2012년 대학등록금 인하 그리고 교내장학금 확충 이게 결국은 대학의 자구 노력의 골간인데, 이것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렇게 해서 전체 국가장학금 43%, 7500억 원이 배정됐다가 70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43% 정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전체 국가장학금의 21%, 딱 절반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21%인 6000억이 배정됐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6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3344억 원, 그러니까 한 59%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I유형을 지급하는 대학 숫자도 작년에 335개 대학에서 올해 228개로 20%가량, 그러니까 47개 대학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대학의 자구 노력으로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겠다 이게 한 축이고, 그다음에 소득별로 맞춤형 등록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박 대통령의 공약인데 그 한 축이 지금 전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실질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낮췄는데 이

제 등록금 동결이 오래 지속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한계를 느끼는……

○박홍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작년에 대학등록금 인하율이 4.79%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0.05%, 사실상 이제는 거의 등록금 동결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학들이 자구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I 유형만 계속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대학이 등록금을 얼마나 올리든지 소득기준만 맞으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과연 천문학적인 우리의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장학금 지급방식이, 이게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기준연도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장학금을 동결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에 등록금을 일단 내렸기 때문에 그 대학으로서는 전체 세입으로 보면 계속해서 등록금을 낮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등록금……

○박홍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학들의 이런 자구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확충이라든가 등록금 인하 부분 이런 걸 게을리하면 II 유형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용화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국은 장학금에 대해서 소득이 어려운 사람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구조개혁도 하고요, 장학금 확충도 하고, 실제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낮추라고 이 제도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낮추는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해야지 애초의 제도 도입 취지가 살려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이후에 각 대학들이 이 II 유형, II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는 II 유형과 관련해서 자구노력, 대학의 등록금이나 또 장학금 확충 수준, 구조개혁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II 유형의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일반고 슬럼화 현상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최근에 한 업체가 수능시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32.7%에 달하는 학교가 최저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홍근 위원 이런 게 사실 자사고와 특목고, 소수 고등학교 너무나 우대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본 위원도 교육부로부터 이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반고와 특목고 그리고 자율고 등 계열별로 분류해서 국·영·수 미달 비율을 좀 분석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11년도의 경우는 자율고가 7.5%, 미달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목고가 7.6%, 일반고 12.8%였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2012년도에 일반고의 미달 비율이 1.7%로 급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목고가 2.9, 자율고가 3.2…… 일반고가 2009년도에 20.3%, 2010년도에 20.7%였거든요, 이 미달 비율이.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너무나, 한 3년 사이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절반 이상 옆드려서 자고 있고 아예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도 많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이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초학력에 있어서 미달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그만큼, 이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게 너무나 부실한 것이다, 뭐 이게 공개를 하니까 그 학교에 대한 낙인찍기 이것을 피하려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을 고의적으로 평가에 응시 못 하게 하는 이런 편법도 있다라고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업성취도 평가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현장의 우리 교장선생님들 만나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일반고로 들어왔다가 이게 자기 적성에 맞지가 않아요. 대학진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식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중간에라도 그렇게 실업계, 뭐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고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열어 준다든가 아니면 이 일반고 안에서도 위탁교육 같은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대학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옳드려 자는 이 사태를 막아 주는 게 장관으로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보니까 1년 동안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심각성이 대단하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학폭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CCTV 설치, 보안관 배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산고 학생의, 경산에서 학생의 어떤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런 어떤 방식만으로는 학폭 근절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확인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처벌 위주의 어떤 생기부 기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좀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NEIS 내의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고 별도의 보조장부를 만들어서 특기사항란에 학폭 사실을 수기로 좀 기재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별도 관리를 해서 취업이나 진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한번 좀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 특히 제가 요즈음 현장의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들하고 만나 보면요, 상담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후 대책보다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최근에 이 전문상담사 20%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담교사 지금 충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효과는 미미한 거고요.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학폭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그냥 학생 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서민지역이나 학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이런 전문상담사나 상담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는 게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저희가 6월까지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현장 중심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순서에 대해서 잠시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여야 간에 순서를 교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박인숙 위원** 예.

○**委員長代理 金世淵** 그러면 정진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박인숙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장관님, 일단 처음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이틀 전에?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덕대 총장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 어떤 좋은 경험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무엇보다도 제가 지방생활을 처음 해 봤습니다. 그렇게 지방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 수도권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박인숙 위원**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그때 지역에 서남대를 폐쇄하지 말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대학이 구심점 역할을 한다. 서남대를 폐쇄하지 말라는 지역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썼어요.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지금 고민 중이신가 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아직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 결정을 안 내리는데 대학의 설립목표가, 제일 중요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무엇보다도 학생들 제대로 가르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내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위원 인재양성이 제일 중요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다음에 연구……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그러면 의과대학의 설립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의과대학은 조금 다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훌륭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사를 양성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이나 다 마찬가지로지만 특히 의료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다른, 공부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 내는 게 의과대학의 목적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게 너무 확실하면 그 의대는 의대로서의 기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고개를 끄덕임)

○박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지금 반값 등록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반값등록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재원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본목적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위원 제가 기대했던 정답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어야 되겠지요.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든 국민의 세금이든 중요한 돈이 쓰여져서 학생을 가르칠 때에는 학교다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물론입니다.

○박인숙 위원 그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때에 반값등록금이고 무상교육이고 그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잘 아시지요, 서남대학교?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대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문에 맨날 이런 게 나고 있지요, 지금 일간지에? 학부모들이 올리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고 편지도 오고 찾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또 학생도 마찬가지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서남의대에 들어갔지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 아니다, 물론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있는데 학교가 학교 같지 못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그 지방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설립자가 세 번의, 최소한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요?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98년에 처음 409억을 횡령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7년에 4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서 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작년 12월에 4004억을 횡령을 하고 교수들과 인력을 착취했다고 감옥에 갔다가 병보석으로 나왔다가 지금 다시 또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이 병원의 대학병원은 지금 없습니다. 수련병원이 없어요. 의료계에서는 지난 십수 년에 걸쳐서 이 대학교 의과대학 아이들이 적절치 못한, 적절하지 않은 의학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를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교육부 한 번도 귀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이 그동안 11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인가 작년부터 문제를 삼고 드디어 이 병원이 환자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보를 한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아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

면 애네들이 입을 안 여니까. 입을 안 엽니다. 입을 연 학생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했느냐, 무조건 유급, 학교를 더 다녀야 돼요. 1년을 등록금을 내고 더 다녀야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입을 안 엽니다. 계속 지난 수년 동안 입을 안 열다가 작년부터 입을 열기 시작해요. 왜냐, 국회에서 떠들고 교육부가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작년부터 입을 열지만 지금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이. 유급을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 나가고 학생도 같이 공범이 돼 가고 있어요. 교육 병원이 없고 커리큘럼이 엉망이고 교수가 엉망인 거를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제일 잘 아는데 학생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본의 아니게 애네도 공범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오래 계셨잖아요. 이것 알고 계셨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전에 근무할 때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때에는 모르셨다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인숙 위원** 교육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요? 이분이 뭐를 했는데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의과대학에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교수 명단을 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안 내느냐, 의협은 그런 거를 요구할 자격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얘기만 끝내고요.

의협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의 명단을 내라, 말 안 듣지요. 교육부에서 내라고 그랬으면 냈겠지만 교육부에서 요구한 적이 없고 드디어 작년에 저희가 입수를…… 작년에 냈어요, 이 학교에서.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 교수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1928년생도 있고 70세, 80세, 90을 바라보는 교수들이 교수들 명단의 대부분이에요. 무슨 과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유명 리스트인지……

이런 학교에서 애네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이제야 교육부에서 너희들 제대로 학교를 만들어라, 의사면허 취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면허증 받아서 지금 환자를 보고 있고 각 병원에 취직을 하고 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뺏을 수는 없지요, 정부에서 준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6학년 학생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멍하니 교육부와 여의도만 보고 있어요, 지금. 학부모들한테 전화 와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할 말이 없어요.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금 하루하루…… 다른 과는 조금 이게 늦어도 자기가 보충을 한다든가 딱 대학 가서 해도 되지만 의사 교육은 지금 1년을 애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버리고 있고, 그래도 이 시간은 채우니까, 누군가 와서 형식적으로는 학점을 따니까 어떻게 해서 졸업해서 의사면허 따면 의사가 돼요.

누가 피해를 봐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고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의사들도 신뢰가 없어져요. 의사와 환자 간에 신뢰가 없으면 그 손해는 다 국민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하루하루 매초 일어나고 있어요. 피를 말려요, 지금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가 과거 십몇 년 동안 이것을 방치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世淵**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정진후 위원**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유기홍 간사님께서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과 관련된 자료 관련해서 오후까지 위원장님께서 그 답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야 될 내용도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예, 일단 행정실을 통해서 지금 그 현황 확인을 해 보고요.

장관님, 그다음에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변경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아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지금 한 81.8% 정도는 제출이 됐는데 나머지만 18% 정도가 제출이 안 돼서 이것을 계속 좀

독려를 해서 제출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오전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정부 방침에 순응한 학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끝까지 버틴 학교들이 지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서 밝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진단의, 어떤 감독의 영역에서 빠져 나갈 우려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교육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제까지 그 판가름이 나겠습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날짜를 제가 특정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예.

○**유기흥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열람까지 우리가 양해했었는데 열람할지조차도 더 검토하겠다는 식의 공문이 온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것은 저희 실무진의 실수……

○**유기흥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아닙니다.

○**유기흥 위원** 확실히 하겠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또 나쁜 전례가 됩니다. 우리는 내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안 줘서 자료를 못 냈다, 이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다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그때 다시 시한 문제를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후 위원** 정진후입니다.

저는 금방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한 내용이 바로 우리 초·중등 교육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의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끓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거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회와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이런 학교가

세상에 아직도 있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께서 교육 여건을 진단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잎보다 뿌리를 살려 나가는 그런 교육 정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국제중학교, 특목고에 불거져 있는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병든 잎입니다. 병든 잎에 미련 갖지 마시고 병든 잎이 병들었고 시들어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뿌리를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셔야 될 이 내용이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그 사항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국제중학교 문제, 그다음에 전교 1등마저 자살을 서슴지 않는 자사고 문제…… 특정 초등학교 학생들이 특정 중학교에 대거 입학하고 국제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80%가 자사고, 특목고로 진학을 하고 그리고 사배자전형 제도를 악용해서 가지신 분들, 권력 있는 분들이 굳이 그런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저는 이런 현상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사실상 슬럼화시키고 있고 국민 모두에게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료제출 거부가 국제중학교를 폐지해야 하는 사유가 되고,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다시 조사하고 검토해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교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수업, 생활지도의 역할 강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그런 정책의 전제 조건은 사실상 부족한 교원들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14년까지 진로교사를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하시겠다, 진로상담교사, 체육전담교사, 초등입니다마는 비교과 교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셨는데 교원 확충과 동시에 비교과 교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사

실상 가능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재부나 행안부 등에서 공무원 충정원제를 들면서 부족한 교원의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다른 정부 부처와의 논의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저희 교육부하고 유관 부처하고 교원충원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다듬자, 단순히 총량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감 요인이 있어서 이게 늘어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정진후 위원** 아,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일단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한 설득력 있는 수급계획을 금년도까지 마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교 스포츠강사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교원 확대 이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어전담교사와 같이 한시적인 비정규교원을 또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외면해 왔고 그래서 15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이 있는데 스포츠강사 문제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지금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보고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TF를 구성을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단순히 그냥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나 신분 보장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가져올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의 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정진후 위원** 아니,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스포츠강사분들

이라든지 이런 직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비정규직의 문제를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김세연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 그렇기보다는 비정규직 제도를 합리적으로 다시 제도화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가려고……

○**정진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나 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전원 그렇게 한 다기보다도 그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진후 위원** 15만 명에 달하는 인원 중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인원이 11만 명이 넘는데 그 11만 명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또다시 비정규직을 늘린다 이렇게 되면 총량에 있어서는 전혀 줄어들지 않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총량 부분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사실은 좀 더 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되……

○**정진후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전체 평균의 학급당 학생 수, 자꾸 이렇게만 누계를, 통계를 내시는데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대한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교사 수급, 그래서 과밀학급이나 과다학급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도시와 농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40명이 넘는 학급당 학생 수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교원수급정책을 살피실 때는 그런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대한 상한선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정책을 좀 설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알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통영·고성 이군현입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하나는 평생교육시설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 문제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조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첫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외고에 주는 특별전형 자격을 똑같이 부여해 줘야 된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서 작년 1월의 지적은 총 204단위 이상 이수,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학력인정 시설이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제외됐어요.

이수할 의무는 없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도 이수 단위를 학교마다 상당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하고 똑같이 총 204단위 이상,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렇게 이수하고 있는 그런 1년에 두 학기제를 운영하고 3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특성화고와 똑같이 특별전형에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질문을 받으셔서…… 알겠지요? 특성화고는 특별전형을 해 주잖아요? 정원 외로 뽑는 거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학력인정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법으로 다 인정된 51개 학력인정이 전국에 있다 그거예요. 학력인정 안 된 것은 많지요. 정식으로 교원도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학력이 인정된 평생교육기관,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기관 중에서 특성화고와 똑같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교는 특별전형에 해당되게 해 줘야 되지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지요. 그 기준을 안 갖춘 학교는 당연히 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반드시 검토를 해 보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하나는, 일반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이고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정된, 법에 의해서 인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기

관이란 말이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이런 특별전형 같은 것을 개별적인 운영……

○이군현 위원 아니, 개별이 아니고 총 204점 이상, 전문 교과 80학점 이상 이수하는 기관에게 주고 있던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맞지 않지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좀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군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게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나이스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말 많던 나이스 문제 때문에 10년 전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장관이 갈리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스에 의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이 이 나이스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무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가 거의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그런 재무회계에 대한 지도·점검도 잘 받지 못했고.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잘못하거나 부정부패가 있는 사립유치원은 당연히 똑같이 처벌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고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도 결과, 어떻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저는 방이 여기 가까워서 제가 TV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사학기관의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교육부가 책임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경기도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은 법제처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하여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법제처는 현저히 문제가 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그런 몇 조

문에 대해서만 수정의견을 냈지 경기도 조례안의 모든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법제처가 검토하지 않은 조문 가운데 정부법무공단이나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보고, 또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목이라든지 법무법인 로고스라든지 등등 복수의 법률 자문기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첫째는 법률 위임 없이 사학법인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또 둘째 대법원 판례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 세 번째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해 법률우위원칙을 위배한다는 점, 그리고 사학지원협의회가 자문기관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법률우위의 원칙하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이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장관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전문가들과 확인해서 가지고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재의 요구 시간이, 이게 아주 문제인데 2시간 전에, 4일 날 12시까지인데 10시가 넘어서 재의요구서를 보냈어요. 우리 서 장관께서 교육행정을 수십 년 동안 해 오셨는데, 12시까지 재의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날 당일 날 밤 10시가 넘어서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넷째, 경기도는 도보에다가 게재를 했으니까 효력을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도보에 게재했으니까 효력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 정부인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의 주장이 100% 옳지 않고 일부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세 가지, 사립유치원 문제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 문제,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주장을 하니깐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군현 위원** 여기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할 말이 있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하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사학 운영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여러 부분의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검토를 하게 돼서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경기도교육청한테 계속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한 내에 통보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의 관보 의뢰하는 부서에 관보 게재 요청을 철회한다 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해석상의 논란이 오가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석상의 논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러 그러한 지적이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 있었고 그런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례 그 문제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을 그날 당일 날 밤 10시가 넘어서 공문을 보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행정을 한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 서남수**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좀 있었었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좀 더 일찍 했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군현 위원** 하여튼 답을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군현 위원** 오케이.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고, 재의 요청 기관이 누굽니까? 경기도가 돼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이 돼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데요, 그 관보 게재를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좀 착오가 생긴 게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관보를 전자관보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공포일이라 그러면 그 전날 저녁까지라도 통보를 하면 그게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냥 종이로 인쇄된 그런 관보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요청했다가……

○**위원장 신학용**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경기도 교육청과 우리 교육부의 충돌이 아니고 경기도와 교육부와의 충돌로 봐야 되겠네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뭐 도의 충돌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 해석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 문제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또 교육부와 충돌 문제,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그런데 괜히 이것이 자꾸 정치 쟁점화되는 게 교육청으로서는 교육부의 지시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 또다시 교육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게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 저는……

○**위원장 신학용** 아, 지금 하시려고?

○**유기홍 위원** 예.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우리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교차로 하는 거니까요.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첫 교육부 업무보고인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총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후에 각론과 현안 문제를 몇 가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까지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솔직한 느낌은 업무보고가 좀 실망스럽다는 느낌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야가 의견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와 문재인 후보의 행복한 중2 프로젝트, 반값등록금 문제, 학급당 학생 수 OECD 수준으로 감축,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 대입전형 단순화, 지방대학 육성,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답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계획 세우시겠지요? 세워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지금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재원 문제가 있는데 재원 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미흡했던 내용을 좀 보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금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덟 가지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덟 가지 우려는 경기 사학기관 조례에서 드러나듯이 장관과 교육감 간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점, 행복교육 슬로건이 무색하게끔 학생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고교 서열화정책으로 인해서 일반고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점, 네 번째 국민행복기금 공약이 대폭적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학자금 연체 학생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 다섯 번째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의 효과를 거의 낼 수 없다는 점, 여섯 번째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국립대의 자율성을 해치는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학비리가 다시금 만연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공약한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학교 비정규직의 실질적 개선의 의지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점, 이 여덟 가지를 제기하고 한 가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경기도교육청과의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지난 이주호 장관 시절에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소송 건이 10건이나 됐었습니다, 지금 이미 고발돼 있는 건도 있고요.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의논해야 될 건을 지금 국회에서 의논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저해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직선제 교육감을 뽑아 냈으면 실제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발목 잡는, 그래서 생기는 갈등은 앞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해결의 의지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으로 시달렸던 학생뿐만이 아니라 자사고의 전교 1등 학생까지 자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의 장산중학교가 2011년 학생안전강화학교에 지정돼서 5300만 원의 예산 지원까지 받은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고 학생, 제가 마지막 남긴 문자 메시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머리가 내 심장을 잡아 먹는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문자를 보면 다 놀랄 것이다. 장례식도 치르지 마라. 내 장기는 타인에게 이식될 것이다.’

이 학생이 1학년 동안 본 시험이 14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살하지 않았다면 3학년까지 시험을 마흔네 번을 봐야 되고 학생 99%가 참여하는 강제적 자율학습,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 20분까지 학교에 사실상 갇혀 있는 이런 속에서 이 학생의 자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과 그리고 성적과 수업에 대한 부담, 오늘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시책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장산중학교는 5300만 원 지원까지 받았던 학교이고 지나친 경쟁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전교 1등 학생의 자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슬럼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 12월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던 ‘미

래한국교육의 발전방향과 전략’이라는 보고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기흥 위원** 서 장관은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제출했던 조사결과를 직접 인용해서 자사고가 학교 간, 학교 유형 간 서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공동 보고서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로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여줬듯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이 될 줄 알았으면 그런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 안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좀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부장관 서남수** 문제의식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선후·경중과 완급을 가려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에 따라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흥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본 위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작성한 자료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행복기금 공약의 내용 자체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원래는 320만 명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33만 명으로 축소됐고 이 33만 명 중에 학자금대출 신용불량자는 2000명밖에 포함이 안 되는데 실제로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교육부대학지원실장 박백범** 7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7만 명에 비하면 이게 몇 %입니까? 지금 2000명 정도만 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강제 압류되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이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 문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지금 국민행복기금 공약이 축소되는 데 맞춰서 이 문제를 같이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2000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사실

지적하면서 나머지 문제는 이따 보충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실 위원** 서남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학교폭력이다, 학생들 자살이다, 청소년의 부도덕 패륜 사건·사고 이런 것을 많이 접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절감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지금 장관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나가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인격적으로도 흠결이 많은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데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오늘 보고한 자료를 일견해 보니까 주로 전인교육과 관련해서는 체육 관련 사항만 보고가 많이 되어 있어서, 물론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다른 한 청소년의 덕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장관님은 다른 복안은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문제는 어떤 개별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교과과정에서 필수 교과과정이 아니더라도 교과과정에 반드시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주로 지식암기 위주로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서 좀 더 토론 중심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면 인성교육에서 많은 효

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실 위원**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히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강연을 해 줘서 그분들의 강연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요즘 각종 종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매스컴과 관련시켜서 TV를 활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 물론 학교가 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내기 때문에 학교가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두 번째 질문은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원의 교육여건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교육에 전념시키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 저출산·노령화로 인해서 우리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감안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2011년 통계청 학령인구 분석을 보니까 11년에는 982만이었는데 2016년에는 861만, 2021년에는 758만으로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여건 개선을 학령인구하고 조합을 시켜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알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다음에 대학 특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교육부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대학을 특성화하는 것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런데 지금 방안 중의 하나인 우수 학과와 학부 중심의 집중 지원을 유도하겠다 하는 것이 혹 대학 발전에 해가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대개 학부의 경우에는 한 학년 정원이 적게는 수 명, 보통 수십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 투입이 되면, 국가에서 주는 재정 지원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면 다른 분야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견이 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장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학부나 학과 중심이 아니라 계열 중심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지고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다음에 최근에 경남 창원시의 태권도 통학차 사고도 있었고 충북 청주시의 어린이집 통학차 사고 등 통학차 사고가 3개월 만에 2건씩이나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실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현안사항으로 보고 부처별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가지고 학생 안전에 관한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다든지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실무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장실 위원** 1분만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김장실 위원** 본 위원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쳐 가지고 운전자가 안전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아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개정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차·학원차를 운영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 사전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반드시 몸에 이렇게 안전확인 의무를 하는 것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행 사항 중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든지 또 통학차량 안전의무 위반 시의 처벌도 함께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장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위원** 종로구 출신 정세균 위원입니다.

BK21 사업의 3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99년도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14년에 걸쳐서 1단계·2단계 사업이 잘 시행이 됐는데 그 성과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3단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가 시작되는 연도인데 작년에 3단계 사업은 충분히 준비를 안했었던가요, 어떻게 됐던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1학기 중에 공고를 내서 선정하는 목표로 지금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정권교체기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정책이 좀 지연됐다고 할까,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겠네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3단계 사업을 BK플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 1단계·2단계와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큰 골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할 하는 것으로 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1단계·2단계에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1단계·2단계 평가를 누군가가 제대로 해야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3단계의 개선점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3단계 사업 내용, 특히 1단계·2단계와 달리 변화시

키는 점을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주로 1단계 끝나고도 평가를 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있었고요.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끊임없이 그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즉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3단계, 그러니까 BK플러스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가져서 또 대학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마 3단계 사업이 사실은 1단계·2단계보다도 훨씬 더 격조가 있고 제대로 준비된 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지금 내용을 보면 조금 서두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일차연도, 이차연도 이렇게 정할 생각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지원사업단의 숫자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3단계 사업의 현재까지의,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수준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정세균 위원** 숫자가 너무 줄어들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선택과 집중이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BK21 사업의 경우에 3단계가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경쟁과 또 보편성을 가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원예산이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그걸 여기저기 나눠 봤자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선택과 집중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BK21 사업은 1단계 때부터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단계도 제가 보

기로는 예산 총액이 그렇게 소수에게만 집중되어서 특혜시비가 일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폭넓게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그런 생각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할까 각 대학들, 대학이라면 국립대학 또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 또 사립대학들 이렇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학교로부터도 그렇고 고등교육계 전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안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선정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얼마를 하고 내년에 얼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에 대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고, 또 국립대학원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키는 게 옳으냐 그르냐 등등, 아니면 이게 중복참여가 아니냐, 중복혜택이 아니냐 이런 논란 등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알겠습니다.

○**정세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서남대학 문제 말이지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정세균 위원** 오늘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원래 학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을 많이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학교운영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임시……

○**정세균 위원** 관선이사……

○**교육부장관 서남수** 임원승인 취소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방식만 가지고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할 때는 정원감축이라든지 학교폐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학교폐쇄가 가장 강력한 제재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자면 경고를 한다든지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든지 정원감축한다든지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 말고 그냥 즉각 폐쇄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개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또 폐쇄조치를 할 때는 사전에 계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정세균 위원** 그런데 서남대의 경우를 보면 폐쇄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수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와 달라서 교육행정은 프로세스를 제대로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통상 교육부의 업무추진 방식이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고강도의 제재조치인 폐쇄로 즉각 들어가라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좀 교육부가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다루셔야 될 것 같다. 이해당사자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측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무슨 먹잇감을 놓고 다투는 듯한, 그런 억측까지 있습니다. 저는 억측이기를 바라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치유하고 교정을 하되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시는 그런 균형 있는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유념하겠습니다.

○**정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부를 상대로 한 첫 업무보고에서 장관님이 평소에 많은 고심을 하셨던 그런 흔적들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가 자칫 과도한 이념논쟁으로 흐를 수 있는 환경을 항상 지금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사학운영조례에 관한 것이든 또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것이든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답을 여야

를 뛰어넘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논쟁의 당사자가 되시기보다는 항상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또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은 질의를 두 가지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히 존재하는 것인데,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까만 학교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2012년 2월에 시행이 되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 발표가 있었지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1년과 2012년에 정부나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긍정은 18.4%에서 13.7%로 줄고, 부정적인 견해가 53.7%에서 60.1%로 늘어났습니다. 즉 같은 시기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던 기간에 상당부분 겹쳤을 것인데 정부나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혹시 사례들 좀 많이 접해 보셨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접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모임이라든지 세미나나 이런 것도 많이 개최가 됐었고요.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혹시 요약된 결과보고만 받으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수기로 작성한 그런 원자료를 직접 접해서 읽어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시간이 되는 대로 원자료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원자료를 보지 않으면 그 절박성이나 심각성을 느끼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委員** 작년 1월에 어느 주간지에서, '시사저널'에서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이모 군—기사에는 실명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는—이 작성한 '폭행일기'라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직접 읽지는 못했습니다.

○**金世淵 委員** 한번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 해에 입학을 해서 작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물건 뺏기는 것은 예상고 성기를 만지거나 때리거나 시퍼런 멍이 들 때까지 계속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날짜별로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다 해 봤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담임선생은 폭행사실을 알았으면 부모에게 연락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학교는 쉬쉬하며 덮으려고 했다. 오히려 학교가 폭력을 키우고 있다’ 이것이 학생의 증언입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전학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마포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학교폭력의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각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해야 했고 심리치료, 즉 미술이나 음악치료를 통해서 풀어 보고자 했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계속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당했던 이 폭력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교사를 찾아가서 호소한 적이 있고요.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폭행현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의 아버지가 교장과 교사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자 학교 측에서 이 군 집을 찾아가서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중학교에서 강서교육지원청에 이 군과 담임교사 상담내용을 보고한 내용이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어서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여기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피해 갔습니다. 학교에서 누구도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7명, 남자 6명 여자 1명인데 이 중에서 4명이 무죄, 3명이 유죄 판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가장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2009년도에 부산에서 있었던 정다금 양 추락사 사건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에 경찰과 검찰에서의 초동조사와 수사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측의 조직적인 증거은폐 시도 때문에 결국에는 무혐의로 처분을 받아서 억울한 일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 후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부모가 일부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재량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있고, 2009년도라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장관님께서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하게 이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하셔야 되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떤 전투적인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막중한 소명의식을, 장관님뿐만 아니라 차관님, 관계관님, 모든 분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직시를 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실망스러웠던 점이 주요 업무보고에 네 가지 현안 과제 중에서, 물론 분량은 충분히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만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이 제일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요즘에 또 다른 현안들이 많이 있지요.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새로운 현안들이 계속 나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점에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1년여 동안 학교폭력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폭적으로 문제가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주 사소한 학교폭력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범죄행위다 하는 인식은 학생과 학부모, 사회 사이에 확산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장 중심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를 기초로 해서 현장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평가를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6월까지의 내용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世淵 委員**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많으시지요?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개의를 하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께서 그동안 특히 이명박 정권의 경쟁지상주의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와 오늘 1차 업무보고와 질의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실망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좀 의욕을 갖고 계신지, 처음이라 그러신지 아니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위축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님,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더 심화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번 새 정권에서는 적어도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가 잘 보이지가 않고 또 장관께서 첫 번째 정책 결정한 부분도 경기도의 사학지원조례 관련한 재의 요구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장관님이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이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아주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크게 변하였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어떤 부분에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오늘 업무보고 드린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초를 아이들의 꿈과 끼를 길러 주는 행복교육으로 가져가겠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보기에 달라진 것은 자유학기제, 이 자유학기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가 자칫하면 한 번의 일과성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우려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가 자유학기제로 독립돼서, 이 자유학기제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연관되는 모든 교육정책들이 함께 발전해야만이 이 자유학기제도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정책의 차별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자유학기제와 지금 공교육 정상화촉진특별법의 내용에 담기는 선행학습 제한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선행학습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이것을 공교육촉진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지금 상당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

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더라도 이 선형학습 금지와 자유학기제 이 두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그런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친 경쟁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고교서열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 장학금 문제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국가장학금 부분은 지금 온 국민들이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교육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장학금 한 번 시행을 하고 올해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에는 55.8%만 지원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지금 신청 규모는 그렇습니다마는……

○**김상희 위원** 예, 55.8%만 지원될 예정이고, 제가 또 보니까 특히 연세대학이라든가 고려대학이라든가 중요 대학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인정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미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도 인정 비율이 37.5%고 고려대학은 59.8%입니다. 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관해서는 이미 이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장학금 문제로는 우리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더군다나 이 장학금이 자그마치 2조 7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쓰는 부분인데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유형은 벌써 2년째 들어서 효력을, 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이 점점 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장학금과 관련해서 전혀 전향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을 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보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전환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깊이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위원** 모처럼 교육위에 오니까 장관께 드릴 질문이 많은데 서면질문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남녀 혼성고등학교 유지나 효과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소위 교육비리 감사 체제나 문제에 관한 것, 그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 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서면질의 할 테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요.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장께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난 때 진주성에서 외장을 안고 남강에 뛰어들 논개라는 분 아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주호영 위원** 혹시 성이 뭘지 아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최씨로……

○**주호영 위원** 성이 주가입니다, 주가.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주가입니까?

○**주호영 위원** 예.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죄송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축석루에 가도 '의기사'라고도 표현이 돼 있고, 기생 기(妓)자…… 그다음에 생가가 경남 거창에 있습니다. 육십령 근처에 있는데요. 거기가 전북 장수, 우리 정세균 대표님 잘 아시겠네. 전북 장수와 경계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묘는 전북 장수에 있습니다. 거기 기념관에 가 보니까, 국가에서 지은 기념관인데요, 절반의 사료 점은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절반의 사료

점은 기생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선시대 기생은 관기든 뛰든 지금까지 부모가 누구이고 이렇게 밝혀진 예도 잘 없고 이렇잖아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주호영 위원 또 그 스토리도 보니까 과연 기생이 맞는 건지 아닌지 좀 더 연구를 해 보면 밝혀질 텐데, 국가적으로는 국란을 당해서 기생조차도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좀 바로잡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기생도 아닌데 기생이라고 이름이 내려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제대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자료들은 그 전시관에 보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 기생이라는 표현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금산에 칠백의총 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주호영 위원 임란 때 중봉 조헌 선생을 비롯한 700명의 의병들이 순국한 데인데, 그때 같이 순국한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많은 걸로 압니다.

○주호영 위원 한 800명 정도의 승병이 같이 순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승유역 불 정책을 쓰니까 이 승병들이 일반 농민들이나 유림들 의병보다 많다는 것이 조선시대 통치이념에 좀 안 맞았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 매몰되어 버려서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이 역사 속에는 아마 제대로 기록이 돼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에는 칠백의총은 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현창하고 있는데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800 승병이 있었다면 이것을 현창하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현창하는 일이 물론 국사편찬위원회의 몫은 아닐 텐데요. 그러나 역사라는 게 팩트(fact)가 존재

하는 데도 작은 팩트를 크게 키우면 그것도 일종의 왜곡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웨이트(weight)를 같이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나중 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갑작스레 질문을 받았습시다만 칠백의총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병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개 신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생으로 불 일이 아니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전라북도 장수라고 그러셨습니까?

○주호영 위원 예.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그 지역하고 서로 모시는 걸 경쟁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질의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자료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팩트만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그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추관지라는 조선시대 문헌이 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주호영 위원 이게 소위 형정에 관한 내용들이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주호영 위원 이 양이 많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600쪽 정도 됩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양장본으로.

○주호영 위원 그러면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나 이런 데 비해서는 양이 엄청나게 적은 편에 속하네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그 형벌, 형정에 관한 것만을 집중적으로 조선후기에 편찬을 한 겁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학자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가 왕조시대이고 백성들의 법적 인권이나 권익들이 많이 무시된 사회로 아는데 이 추관지를 보면 지

금 어느 나라의 형정보다도 훨씬 더 인권을 배려하고 세밀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런 책이라도 제대로 영역해서 전 세계 로스쿨 같은 데만 보급을 해도 소위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다를 텐데 왜 이렇게 비용도 적게 들고 누구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값어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작고한 분인데 미국인으로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 후손인데,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서울대학 법대에서 한국법제사로 석사를 하고 다시 하버드에서 박사 한 분인데요. 그분은 '조선왕조가 왜 500년 갔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법치국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구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관지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조선시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고, 저희들도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지만 외국에 이것은, 오히려 국익이나 국격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좀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사편찬위원장님 오랜 만에 시원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있어서 좋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앞으로 국사에 관심이 많은 우리 주호영 위원님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박혜자 위원님!

○박혜자 위원 광주 서갑의 박혜자입니다.

제가 평가지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정말 교육청에 대한 평가지표나 대학에 대한 평가지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평가지표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논리적으로 합리성을 인정받아

야 되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12년도에, 작년에 있었던 전국 시·도 교육청의 평가를 보시면 충남교육청 같은데 우수교육청이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127억 359만 원 인센티브로 받았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업무 파악하시면서 과연 충남교육청 같은 데를 정말 우수교육청으로 지금도 인정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박혜자 위원 '아니요'인지 '노(no)'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최근의 현상만으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127억 이상의 정말 재정 인센티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정 인센티브가 '매우 우수'하고 또 '매우 미흡' 간에는 8배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교육청 간에 인센티브 격차가 8배 이상 벌어져야 될 만큼 크게 문제가 있던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평가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하여튼 시·도 교육청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평가지표 전반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만드셔야 될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가지표를, 제가 지난 MB정부 때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가지표를 보게 되면 보통교부금도 사실은 이 평가지표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교부금에도 들어가 있는 지표들이 이렇게 이러한 평가지표에 따라서 특별교부금까지 또 연동이 돼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막 지표가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1배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격차가, 중복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장관님께서도 교육복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혜자 위원** 중요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교육복지 같은 지표는 거의 사실은 소홀히 되고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평가지표가 어떻게 저렇다 이러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봤자 아마 장관님께서 전부 다 사실 파악은 안 하셨을 거라고, 세부적인 지표는 파악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평가지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학 평가지표도…… 대학이 가장 요즘 아프다고 하는 게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대학총장님들이나 대학교수님들 만나면 뭐라고 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지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어떤 지표가 어렵다고 그래요, 지방대학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방대학들은 취업률하고 학생충원율 부분에서……

○**박혜자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률과 충원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대학이 취업률과 충원율 지표가 중요하다 보면 대학교수들이 지금 어떤 현상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방대학 위턱대에 계셨으니까요,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정말 교수님들이 학생들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다니세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취업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습니까? 충원율 높이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잡상인 금지’라고 하는 풋말도 붙어 있는데 다니면서 정말 학생 충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요. 그게 현실이지

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취업률과 이 충원율이라고 하는 게 대학교수님들이 공부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 더 잡아 올까, 또 어떻게 해서 학생 어디에다든지 아는 데 취업시켜 볼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계십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점에 있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취업률과 충원율 지표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5%씩 낮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충원율과 취업률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대학교수님들 만나면 제일 큰 고민이…… 대학교수 이번에 성과급제 도입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것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미 그 시행방안은 대학에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혜자 위원** 대학교수님들이 아무튼 이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스테디를 하겠습니까만 장관님께서도 정말 대학 현장에 이 성과급제 도입하는 문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스카우트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중·고교에서 그런 활동들 장려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정말 적십자라든가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활동은 우리 학생들 말하자면 인성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스카우트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특히 이러한 것들이 방학 때라든가 또 주말에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왜 그 교사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안 줍니까, 평가 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언제나 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

○**박혜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학생들의 대외활동 지도,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지도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 줄 건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아까 서남의대 연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월 19일에 그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명령 그게 끝났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고요. 일부 사항은 아직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뭐를 이행했나요? 그게 정확히 '136명의 학위 취소를 하라', 또 하나는 '330억을 법인전입금으로 넣어라' 이게 감사 이행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부모한테서 들은 거로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서남의대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또 서남의대 살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나요, 법원에서?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계속해서 불복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이 될 거고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순간, 한순간 한순간에도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의대 아이들은 정말 밤을 새고 24시간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는데 애들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실습을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과대학 교육이라는 게 아무 데나 들어가서 환자가 있다고, 그냥 환자 얼굴만 본다고 의과대학 실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전주예수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남광병원은 실습 지위를 이미 잃었고 거기는 유령 건물이고 전주예수병원에는 환자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실습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어깨너머로 환자만 본다고 실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지부의 정식 수련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있는 학생들도 몇 년이 흐른다면 '너네 인가도 안 된 병원에서 실습받았으니까 임상점수 안 준다, 뺏는다' 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지금 본과 3·4학년은 그런 상황이고, 예과 1·2학년하고 본과 1·2학년은 교수 18명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료계에서 주장을 했던 게 '의대평가는 전문가한테 맡겨라', 교육부하고 십몇 년 동안 이것을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일종의 과장된 거지만 하버드의대—물론 세계 최고지만—교수 수가 몇 명인지 아시는지? 1만 3000명이예요. 토론토의대 2008명이고, 울산의대 서울대 카대 등등 몇 개 메이저대학 교수가 700명이 넘습니다. 나머지 다른 의대도 400명, 500명이 되는데 여기 지금 18명의 교수가 남아 있어요. 18명이 네 학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실습하는 애들은 아예 교수가 없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의사 면허시험을 보게 할지, 인정을 할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8명도 그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1928년생에서부터 80세를 훌쩍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8명이 어떤 18명 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정말 학생실습이, 학생교육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는 게 의대평가, 의대 설립도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막 됐거든요.

우리나라에는 41개가 너무 많아요. 의대 설립에 관한 또 의대의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정평가원이라든가 그런 공식기구가 반드시 교육부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 하나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 멀리서 안 보지만 동그랗게 여기 가운데 점이 있고, 여기가 학교고 나머지가 전부 모텔이에요. 이 학교는 37개의 모텔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전부, 하다못해 학교 바로 앞에 스트립쇼도 하고 있어요. 전에 MBN에서 방송했거든요.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방송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방과 후에 한대요. 학교 닫은 다음에 한대요, 요새 학교에 아이들 늦게까지 있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날아가지 않는 한 이 모텔로 둘러싸인 골목골목을 지나야만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대책이 없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가 200m인데 여기를 조금 넘으면 올림픽공원이 있어요. 올림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원이지요. 그 안에 매일매일 4000명에서 5000명의 도박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걸으로는 안 보이는데 일주일에 5일을 하루에 4, 5000명의 도박중독꾼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학교유해환경…… 이게 학교보건법에도 있잖아요, 학교 근처에 유해환경 업소가 있으면 안 된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스크린 경정·경마는 없어요. 그것도 포함돼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는 이 학교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요. 이 학교가 먼저 생겼고 모텔이 나중에 생겼거든요.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되고 스크린 경정·경마·경륜, 학교에서 몇백 m 안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것 유념해 주시고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한 말씀만 드리는 게, 서남의대 말로만 듣지 말고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학생, 학교 현장을 한번 가 보셔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일이 아니라 십몇 년 동안 지속된 문제거든요. 이제 장관으로 시작하시니까 한번 가 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입니다.

오전 질의 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또 학부모, 교사들 설득하고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 같은 것도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동안에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장기적으로 보고 정권이 또 바뀌면 끝난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초·중·고 학생들 중에 학업 중단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전체 초중고 합하면 중단자가 한 5만여 명 그 정도……

○**도종환 위원** 7만 4000명이거든요. 2011년은 7만 6000명이에요. 해마다 한 7만 명씩 최근 한 6년간 42만 8000명, 학업 중단 학생 숫자예요.

원인이 '부적응'이라고 된 게 45.9%이고요. '가사'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원인 그다음 많은 것이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 숫자가 2008년, 9년, 1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5000명에서 8000명, 9000명 하다가 지난해 1만 5000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기타는 뭘니까? 학교를 중단한 학생 원인에 기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타는 뭘까요? 국장님들 중에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 학생복지안전관 황흥규입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서 분류되기로는 학교 부적응……

○**도종환 위원** 그런데 기타 숫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타는 뭐예요, 학교를 그만 둔 원인?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과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부도 과악을 못 하고 있어요, 학교도 과악을 못 하고 있고?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기타로 분류를……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기타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교육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급이 이대로 계속 올라가는 수능의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으니깐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러나 뭐 이런 것들입니까?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그런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 기타가 뭔지, 왜 계속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예.

○**도종환 위원** 지금 일어나신 분이 누구세요?

○**교육부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입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정보통계국장님 계십니까?

○**교육부교육정보통계국장 이근우** 예,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작년에 자살한 학생 수는 통계에 나와 있지요?

○**교육부교육정보통계국장 이근우** 예, 나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몇 명입니까?

○**교육부교육정보통계국장 이근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일주일이 멀다하고 학생 자살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공부 잘 하는 아이들도 죽고, 이 통계와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있지요?

○**교육부교육정보통계국장 이근우** ……

○**도종환 위원** 통계국에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통계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최근 3년치 학생 자살 통계 좀 보내 주세요.

○**교육부교육정보통계국장 이근우**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죽어 가고 있고 학교를 그만두고 있고 또 그만둔 원인에 대한 분석을……

보세요, 대통령 업무보고 하실 때 ‘100일 후에 달라지는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에서 교육부가 먼저 달라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진짜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 왜 부적응인지, 그냥 부적응 해 놓고 45.9%, 42만 명 학생 중에 46% 가까이가 그냥 부적응인데 그 부적응이 무엇인지, 진짜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체벌 또는 집단 따돌림 또는 폭력 때문인지 성적 때문인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고민 해야 된다고 봐요.

학교 다닐 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자랄 아이들이 제대로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1억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10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결국 다 우리 국민들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돌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거나 죽거나 또는 자궁심을 못 갖는단 말이지요.

고교 서열화 되면서 집안이 넉넉하거나 괜찮은 아이들은 자사고로 가고 특목고로 가고 남은 아이들은 ‘우리 일반고 다녀’ 이러면서 아이들이 풀이 죽어 있던 말이지요,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이 학생 하나하나를 자궁심을 갖고 자신감 갖는 아이로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콤플렉스나 열등의식 갖는 아이로 계속 키워 내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강남의 아이들, 교육특구에 그만둔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5000명이 넘어요. 1위가 강남이고 2위가 송파이고 그리고 4위가 서초예요. 이쪽에 그만둔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교육이 이대로 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지혜를 모아서 아이들이 그만두거나 죽거나 열등의식을 갖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업 중단 학생들과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학생들이 그만둔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국가에서 관심 있게 보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둔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 많은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니까 다시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복귀 안 되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도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희정 위원** 지금 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 장관님의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장관님의 견해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재정 문제가 없다면 포함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깊이 줄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무상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

제가 지금 재정에 관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교육철학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의무교육의 범위 안에 무상급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포함시키기에 상당히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위원** 물론 현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정적 부담 역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맞고요.

그런데 제가 장관님의 인식을 질문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목표점을 두고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 상황에 만족할 것이냐에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소위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완전히 별개로 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총선의 공약으로 의무교육 안에 무상급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희정 위원** 어느 정도 편차가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시도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데도 있고요. 그 비율이 아주 현저하게 낮은 시도도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똑같이 재정이 들어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재정여건이 무엇보다도 제일 큰 원인이고요. 또 시·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들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분담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지도를 해 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현황대로 두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무상급식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지역별로 편차도 크고 또 질적 차이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교육청이 많이 분담하는 곳과 지자체가 더 분담하는 곳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보니 학교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파급적인 효과가 상당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편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시도별로 재정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적

으로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율을 상향하는 부분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 비율 상향이 되면 교육복지와 관련된 일을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국가 재정구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하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정치라는 게 정해진 재화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곧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 뒤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장관님께서 새로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라든지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율 상향을 향후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해 놓고 고민을 하시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를 하신 다음에 향후 대책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희정 위원**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학생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차등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더군다나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서민층이 그런 것에 따라서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당장에 내일 개선을 하라 이런 것을 떠나서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저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김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무상급식 문제와 그리고 교부율 인상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님은 대단히 전향적인 문제의식을 보이셨는데 제 느낌은 장관님은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는 데 대개 한 2조 육칠천 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무상급식은 거의 4조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저희가 추진해야 될 굉장히 많은 시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재정적인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될는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대리 유기홍** 예.

○**김희정 위원** 덧붙여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앞서 다른 부처와의 중복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살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지금 교부율 인상에 대해서 법안 내신 의원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후 위원** 정진후입니다.

장관님, 작년 12월 31일부로 교원소청심사위원이셨던 김영숙 위원께서 임기가 만료되셔서 새로운 위원을 제청해서 임명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정진후 위원** 고영현 위원, 맞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장관님 취임 전이라서 지금 모르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장관님 모르시면 교육부의 누구든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원소청심사위원, 공석의 위원을 임명하기까지의 추천위원회나 혹은 추천의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담당자 누구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공문을 받아 봤어요.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 제청의 과정이나 혹은 추천의 과정 이것도 교육부 내에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관이 알아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받아 보니까 그런 과정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성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때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어떤 과정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시고 말았어요.

이것 왜 문제가 되느냐, 정부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명까지의 과정, 추진일정을 보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내부 보고 및 BH 협의’, 여기 BH가 어디지요? 청와대지요? 12년 12월 12일 BH와 협의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맞지요? 이것 교육부의 공문이에요, 장관님.

장관이 단순하게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BH, 청와대와 협의해서 소청심사위원을 제청하고 임명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이나, 각급 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소청사건을 심사해서 그 불리한 처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신 바에 의하면 소청심사위원회 자료로 나온 것 보면 인용률이 80%가 넘어요. 다시 말해서 승소율이 80%가 넘는다는 거지요, 재판에 갔을 때. 그렇지요?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증원 예.

○정진후 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유난히 전교조 관련한 교사들이나 교육청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승소율, 다시 말해서 인용률이 10%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히 편향적인 심사를 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장관 역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파악해서 이후에 다시 구성 문제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장관은 국정감사에 나와서 거짓말로 그렇게 답변하고 뒤에서는 곧장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은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청와대와 같이 협의해서 임명해 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장관님, 이 문제가 지금 이런…… 전직 장관께서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마 BH 협의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추측으로는……

○정진후 위원 아니 장관님,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문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12월 12일 BH와 협의했다는 것이 추진일정의 맨 처음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공식 기강 쪽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보다도 그런 기본적인……

○정진후 위원 그러면 인사검증을 거친다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거니까 그 이전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정진후 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시고 국정감사에서 장관께서 나오셔서 그 구성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정감사 이후에 한 처리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내부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인용률 이것만 보더라도 기능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왜곡을 바로잡아야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맞다고 봐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용률이 낮아 버리는 것은 이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소청심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되겠어요?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좀 분석해보시고 전직 장관이 약속하셨던 대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법령의 개정 이런 것들까지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4월 중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장님.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종원 예, 이종원입니다.

○정진후 위원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인용률이 낮은 것, 이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후의 대안, 이런 것들을 소청심사위원회 자체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분석하셔서 4월 회기 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표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에 있었지만 논문 표절이라는 것이 정말 인식의 차이가 용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주 관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은데요.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일국 대통령도 사실 박사논문 표절 때문에 2년 만에 하야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정도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사실 논문표절에 대한 강도를 높여 가지고 연구윤리의식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동의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학위를 발급하는 각 대학에서 논문에 대한 DB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후검증 수월성도 가지고 있지만 사전예방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하여튼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표절 문제는 대학이 우선 일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교육부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까 민주당의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성과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 논문의 양적 평가가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 대학마다 보게 되면 논문의 질은 뒷전이고 평가지표에 모두 양적 평가가 가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넣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는 데만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예를 들어 유명인사로 발탁되거나 할 때는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승진심사 할 경우는 조금의 강도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성과급 논문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예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윤리의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저도 논문을 써 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어떠한 강도 있는 질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체적으로라도 소위 말해서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이 걸리게 되면 징계를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요즘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져 가지고 그런데 사실 신용불량자를 보게 되면 일반층보다도 젊은 20대 신용불량자들이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 국민 카드 보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출 습관이 올바라야 되고 그다음에 신용 관리 방법 등 금융 이해력이 사실 젊은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소위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되겠다,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학점이 큰 영향력이 없는 1학점짜리 학점이라든지 금융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대출할 때 보면 신용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위 대출이자율 좀 감면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잘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신용관리를 해야만, 이런 기본소양이 돼야만 앞으로 30~40대 되면 그 친구들이 결국은 올바른 신용관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나라를 경영할 때 있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뚜렷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신념이 설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에서 학점화하는 방법, 학점화해서 작지만 인정해 주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런 것을 혹시 모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할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대학 교육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대학사회에 상당히 퍼져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하여튼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학 학점화하는 방법, 1학점짜리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니까, 해서 금융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예.

○**박성호 위원** 사실은 교육부가 대학평가에서도 일부 취업률에 보게 되면, 유지취업률 있지 않습니까? 유지취업률 반영을 일부 해 왔었는데 사실

은 일반에게는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금년도에는 2012년도 6월 1일 기준 유지취업률을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박성호 위원** 그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 취업률을 대학알리미 등에다가 공시를 해 줘야만 일반 학부모들이 그걸 잘 보고 어떤 학교에 가야 될 것인가를 선정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또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업률을 부풀리기 하는 그런 편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지취업률을 알려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풀리기 편법이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6월 달부터 한다면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새 정부에서도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언어사용에서도 폭력이 있잖아요. 욕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현영희 위원** 비속어, 은어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학생들이 만연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느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바른 언어 사용하기를 그 학교의 모토로 삼고 그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이걸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14페이지 보면 학교 수업 내용이나 방법 이런 평가 방식을 전환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가 방법이나 이런 걸 통상적으로 지필 평가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

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에서의 수행평가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데에 대한 평가를 교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늘려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사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인성 교육 하는 교사에게 평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이걸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지 어느 특정한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장 기초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초등학교 때부터……

○**현영희 위원**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4~5세경이 아주 가치관의 기본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인성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의 가치관에다가 그다음에는 습관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의라든지 또 질서교육, 청결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켜야 될 예절, 질서, 청결이라든지…… 담배꽂초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지금 산불 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가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은 지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인성교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복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부산에서, 방송국에서 나오는 '시사인부산'이라는 특집프로그가 있었어요. 시사프로그가 있었는데, 지금 부산교육청에 1만 2000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2000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들이 교육청 앞에서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또 삭발을 하고 지금 또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지금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못 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하니깐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무상급식비에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충당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사람들 중에서는 사서교사라든지 급식봉사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전문인력가들도 많이, 봉사자들도 비정규직으로 많이 필요하고 있고 아까 우리 보고에서도 보면 지금 상당히 늘어나 있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 인사는 아까 진로교사 문제 또 전부 다 전문직을 양성하겠다……

Wee센터 운영, 전문상담교사, 이런 교사들은 다 지금 비정규직으로 하실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실시해 나간다면, 비정규직은 2년간 또 무기계약직이지요? 무기계약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내쫓기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지금 교육기반 여건 환경에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희정 위원이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상하고 의무하고는 그건 자체가 틀립니다. 무상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의 재원으로써 하는 거고요, 의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무상하고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다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무상급식을 강조하는 교육감은 거기에 대해서 더, 또 지자체는 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방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원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간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또 법으로 제시를 하는 그 분야를 만들든지,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든지,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급식환경시설 개선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관련된 이 사안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영어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한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한글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이고 정말 유일한 글자입니다. 지금 거꾸로 한국말을,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중시 안 하면 누가 중시합니까?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교육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전개를 해 주시고 또 바른 언어 사용, 이것이야말로 인성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각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하는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것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밑받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말하는 것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대한민국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만 너무 강조를 하시지 말고 우리말을 세계에 전파한다 하는 이런 정신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중국과의 교류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솔직히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저도 한자를 배운다고 배웠습니다마는 한자교육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이제 좀……

○현영희 위원 중국말 하기 전에 우리 한자교육 바르게, 그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중앙교육연수원의 서명범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육을 보면 합숙교육 그다음에 현장교육 그리고 원격교육,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던데요.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경력단절 되었다가 기간제교사로 임용

되는 교사들이 많은데 그 교사들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격교육으로도 얼마든지 공간이 없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교육연수원장 서명범 지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경력단절된 교사를 재연수시키는 그러한 경우는 시·도 교육연수원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격……

○강은희 위원 필요하다면 가능하십니까?

○중앙교육연수원장 서명범 만약에 원격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그걸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시·도 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교육연수원에 있는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만들기 교육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학교현장에서 정말 담임이나 상담교사 그리고 여러 지도하는 교사들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 우리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만들기 교육과정으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교육연수원장 서명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주로 예를 들어서 학교경영 선진화 과정이라든지, 그것은 교장·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역할극이라든지 연극 같은 것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문제점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문제를 제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보완해야 될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홍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은희 위원 예, 가능하면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만들기 교재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태운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NEAT 영어교육과정 시험 준비하고 계시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예.

○강은희 위원 얼마 전에 3월 9일에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시험 치르셨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예, 3월 9일 날 치렀습니다.

○강은희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지금 채점 단계에 있고요, 그 결과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결과에 대한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예.

○강은희 위원 원래 NEAT를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 국내 인원 연 247만 명이 토익이나 토플 응시해서 많은 로열티도 미국에 나가고 또 대체하려고 해서 계속 진행 중인데 2015년 시행을 목표로 했는데 2018년으로 유보되어 있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저희 1급 시험은 15년 목표로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은희 위원 2급·3급이 유보되어 있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예.

○강은희 위원 이게 원래는 잘 활용이 되면 대입 수사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도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예, 그게 2급·3급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대체하는 기간이 길어지겠네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지금 2급·3급 문제는 계속 시기를 결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자체 영어시험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 나라하고 우리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준비나 홍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저희가 이것 1급 시행도 준비기간 한 3년 거쳐서 올해부터 시험 시행에 들어간 거고요. 대만이나 일본 그리고 아시아 나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실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러한 사례도 연구를 해서요 아주 훌륭한 시험으로 정착시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물론 충분한 준비와 시행령이 필요한데요, 생각보다는 좀 미진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운 그러나 아무튼 큰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은희 위원 진행되거나, 나중에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강은희 위원 국사편찬위원회의 이태진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육일승천기를 재디자인해서 사용했었던, 신문을 보셨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봤습니다.

○강은희 위원 물론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학교 기관에서 제대로 못 배운 교육 당국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누구를 꼭 집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합니다마는 이것이 또 교육과정 문제는 다른 과목과의 관계 등으로 해서 본부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사전문기관의 책임자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일승천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일을 앞에 두고 모 방송국에서 안중근 관계 특별다큐멘터리를 하고서 마지막에 안중근 사진을 명동거리 같은 데 내놓고 지나가는 젊은이를 붙들고 누구냐고 물으니깐 43명 중에 세 사람만 안중근이라고 답했다고 그러합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서 모두가 같이 숙의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본 위원도 깊이 통감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장관님께 의견서를 좀 내볼까 합니다.

○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운 원장님, 2016년에서 2급·3급 2018년으

로 연기되어 버렸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 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게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아주 원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물론 이 문제가 대학입시와 연계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익이나 토플 같은 외국 문제를 사 와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돈 들어가는데 우리가 외국처럼, 일본·대만·중국도 다 만들어 쓰는데 우리처럼 괜찮은 나라가 왜 못 쓰냐, 거기에서 출발한 건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강은희 위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뭐, 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능력 없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토익, 토플과 관련된 것은 지금 1급 시험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급, 3급, 또 이것을 수능과 연계시켰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법적으로 사법시험이나 행정시험, 국가시험의 1차 면제에 그것 통과하면 되는데 우리 NEAT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공무원시험이나 취직시험에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장 신학용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모든 시험에 토익, 토플로 대체하고 엄청나게 돈 벌고 있고 이것이 우리 자주성, 자존심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 그것을…… 2008년부터 하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입법도 대처 못 하고 계속 연구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15년도에는 상당한 성과가 가시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 신학용 15년예요?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윤 예, 시행을 하겠습

니다.

○위원장 신학용 하여튼 봅시다, 나중에 제가 질문 좀 할 거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여덟 가지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고, 네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유형의 문제는 성적 제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점하고, 최대를 받을 수 있는 게 연간 450만 원인데 사립대생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은 사실 등록금 경감 효과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런데다가 6000억 원 중에서 3349억밖에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것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나머지 잔여 장학금 부분은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전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1유형 장학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좀 큰 폭의 개선책을 마련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맞춤형 반값등록금 제도를 만든다 하는 게 기본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각종 평가지표 반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아까 교육청 평가지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총장직선제를 사실은 총장님들, 교수님들 팔목 비틀어서 폐지시키려고 했는데 이 문제도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총장직선제 문제는……

○유기홍 위원 문제를 포함해서 평가지표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기홍 위원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사학비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존

정하는 주호영 위원께서도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교육부의 감사관실 정도의 역량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여당 위원들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리사학이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구재단들이 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복귀한 재단에서 다시 비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좀 소홀하게 다뤄졌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우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셨고, 특히 공공기관이 문제인데 올해 계획을 제가 좀 미리 들어 보니까 공공기관만 한 1만 4000명 정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고 교육기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무기계약직이 절대로 정규직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도 해고당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봤고 상시·지속 2년을 막기 위해서 2년 앞두고 해고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운영지원비가 위헌 판결 받으면서 지금 중학교 교사들 수당 6만 원, 직원들 수당 5만 원 주고 있던 것 못 주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이 와중에 영양교사들 수당 3만 원 다 합의됐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 주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기홍 위원** 지금 안행부는 연말에나 이것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1년 동안 월급이 깎인 상태로 되는데 이것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수당 규정을 좀 조기에 개정하는 문제를 지금 안행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해서 항소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 항소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

○**유기홍 위원** 누가 알고 계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아니,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유치원교사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수가 있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있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하니까 항소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 비용은 제가 알아보니까 3300만 원이에요, 변호사 비용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부하고 교육청 과실로 해서 그분들에게 엄청난…… 사실 그분들 중에서 7년, 10년씩 임용고시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수로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소송에서 지고 나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항소를 하고……

그분들은 약자들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2만 원, 5만 원씩 모아서 소송비용 만들어서 항소심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1심 판결이 종전의 판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계속 이렇게 항소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비 쓰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아교

육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분들 불이익 안 볼 수 있도록 시험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국사편찬위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이태진 위원장님, 많은 분들이 지난번 장관님들의 인사청문회에서 5·16이나 10월유신에 대한 태도에서 대단히 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과거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5·16이나 10월유신에 대해 미화하는 방향으로의 국사교과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기준에 중립성 심사가 있지요?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유기홍 위원**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으로 곤욕 치르셨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유기홍 위원** 이번 검토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문제를 거의 다 짚어 주셨네.

자,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世淵 委員**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앞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추가 사례를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점은 꼭 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예방을 하고 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주체가 되어야 될 교장, 교사들이 가해 학생을 감싸고 그 비호세력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은폐·조작·왜곡 시도를 하는 사례가 웬만한 신문 보도, 또 실제 사건을 접해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손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문제로 우리 국회도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생부에 폭력 사실이 기재되면 안 되니까, 이 아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학생인데, 특목고 갈 수 있는 학생인데, 이래 가지고 학교 측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이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앞서 여러 논의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교육재정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도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또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적인 대표성이 일부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시각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재정 전체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또 교육부장관으로서 이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면이 있을 텐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들을 항상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또 국가재정과의 접점을 잘 찾아 주시는 지혜로운 해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교문위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고 앞으로 반복을 해서 말씀드릴 것이니만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 또 오늘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문화 분야가 저는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이제는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파워 시대에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영토 문제, 역사 문제로 주변국에서 항상 침범을 해 오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됩

니다.

제가 3월 중순에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집단학살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 참석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동아시아 문제를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했을 것인데 총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바가 있고, 또 그 추모사를 함께 하러 나온 독일의 아주 큰 도시의 시장이 똑같은 발언을 하기에 일본의 로비력이 여기까지 번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담 후세인이 이란·이라크 전쟁 말기 3년간에 걸쳐서 5만 명 내지 10만 명—그 시체 발굴이 다 안 돼서 규모도 이렇게 정확치가 않습니다—5만 명에서 10만 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살당한 집단학살 문제를 거론하는 자리에서, 또 그 자리는 인구 8만 명 도시에 화학탄을 터트려 가지고 노약자와 아이들이 주로 학살당하고, 5000명이 학살당한 그 장소에서 쿠르드인에 대한 집단 학살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자가 동격에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인도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추모사 하고 내려오는 독일의 한 두세 번째로 큰 도시 시장을 찾아가서 바로 따졌습니다. ‘관동대학살을 알고 있느냐?’ ‘남경대학살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국사편찬위원장님만 계시고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오늘 출석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 관동대학살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기 위해서 좀 찾아 달라고 했습니다. 각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문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관동대지진 관련 조선인 대학살 영문 자료를 요구했는데 89년도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학술지의 기고문이, 일본인 학자가 기고한 한 편이 답변의 전부였고요,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역사 기관 가운데서 한국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 한국학 지원 및 교육부 위탁사업인 한국바로알기사업을 수탁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일본 학자가 쓴 한 편을 찾아 주었다는 사실, 동북아역사재단은 아예 해당 자료가 없다는 구두답변만 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총 38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인터넷 자료까지 하면 744만여 건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한,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관동대학살 영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조사를 해 봐도 단 두 건이 나왔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사실 민간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정보를 집단지성을 통해서 백과사전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관동대지진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줄이 들어가 있을 뿐이고요, 대학살을 의미하는 매서커(massacre)나 집단학살을 의미하는 제너사이드(genocide)로는 검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2월 3일, 올해 바로 두 달 전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가 수기로 쓰여진 사진 두 건이 공개되었는데 한 기록사진 연구가가 찾아서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수십 구, 사진에 나열돼 있고 시신 중에 여성 시신에 대해서는 하의를 벗겨 놓은 아주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이런 사진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국제적인 로비를 통해서 2차 대전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전범 국가 입장에서 가해자인 국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는 피해자인 것처럼 아주 왜곡해서, 물론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해서 희생된 민간인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점은 인도적으로 분명히 애도를 표할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거대한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손도 못 쓰고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관동대학살이 우리 기억 속에만 관동대학살이지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위원님 지적 정말로 마음 깊이 새겨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끈질기게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委員** 드릴 말씀이 많지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쓴 논문이 하나도 없다고, 대학살에 대해서?

○**金世淵 委員** 관동대학살에 대해서 논문 자료가요.

○**위원장 신학용** 우리 국내 자료도 없는 것 아

니예요, 그렇지요?

○**金世淵 委員** 영문 자료를 요청했는데……

○**유기홍 위원** 국내 자료는……

○**위원장 신학용** 있겠지요.

○**유기홍 위원** 민간에서 집중적으로 그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위원장 신학용** 오늘 김세연 위원님 질의에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도종환 위원** 예.

○**위원장 신학용** 우리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EBS 수능강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도종환 위원** 이것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도 한 1조 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EBS하고 수능 연계정책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월 소득이 좀 낮거나 또 지역의 규모가 작은 데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이렇게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를 예를 들어 한 19조 정도 된다고 할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간 사교육비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사교육비보다 많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EBS의 경우에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EBS 플러스 1, 그러니까 수능이나 내신·논술교육하고 대입 대비한 교육하고 EBS 잉글리시 이런 데는 지원하는데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EBS 플러스 2, 초등·중학·직업교육 채널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이쪽도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더 지원할 수는 없는지,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또 EBS 특별교부금 현재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종합적으로 특별교부금에서 아주 시급한 시행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시행

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마지막 심의 단계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마지막 심의 하고 있는 중이지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게 4월을 넘겨야지만 협상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그러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기간보다도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가요? 어렵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예산당국에서 그걸 국고로 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게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특별교부금 이 문제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金世淵 委員** 저는 추가질의……

○**위원장 신학용** 김세연 위원님.

○**金世淵 委員** 장관님,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지금 적게 나타난 최근의 어떤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마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앞서 제가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 왕세자가 어느 아주 사적인 모임에서, 그때 무슨 분장을 하고 나타나는 자리에서 나치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아주 좀 소란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아주 역사적인 거대 전범에 대해서는 우리 인식이 약간은 멀게 느껴지거나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느 케이블TV의 코미디 프로그램 소재로 히틀러라는 인물을 약간 희화화해서 다루는 것이 아무런 거부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허용해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히 그어지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교육의 영역일 수도 있고 문화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아까 옥일승천기에 대

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다 밟아 온 우리의 청소년들 또 건전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런 분간을 못할 정도로 무언가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한 번 듣고 지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부분의 틀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알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학교폭력 문제와 이렇게 맞닿아 있지만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 인식의 문제, 또 앞서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금융지식의 문제 이런 부분이 비단 어떤 고등교육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 확고하게 인식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의 어떤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또 교육 공급자로 분류될 수도 있는 우리 교사, 그리고 교사들이 양성 과정을 밟아 나오는 기관을 운영하시는 사대와 교대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 과정이 적어도 한 10년 가까운 주기를 가지고 안정적이고 아주 신중하게 개정이 되었던 반면에 지난 2006년, 7년, 9년을 거치면서 어떤 경우는 불과 1년 만에 교육 과정이 다시 바뀌어 버리는, 아주 교육 현장에서의 대혼란을 부르는 이런 좀 신중치 못한 접근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과 중심의, 그래서 교과 이기주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고 특히 사대와 교대의 이런 아주 뿌리 깊은 칸막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학교 현장에까지도 그대로 연결돼 와서 우리 교육의 어떤 질적인 도약을 저해하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교육 과정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례를 한 두 군데만 소개하자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같이 지향하는 바를 탁월성·혁신·탐구·호기심·다양성·공평 이런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무엇으로 가질 것이냐? 언어·상징·텍스트 활용하기, 자기 관리하기, 타인과 관계를 맺기, 참여하고 공언

하기, 이런 역량들을 갖추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헤센주를 보니까 개인적인 역량과 사회적인 역량을 추구하는 가치로 놓고 공통 역량으로서 개인 역량, 사회적 역량, 학습 역량, 언어구사 역량,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칸막이 쳐진 데서 무슨 요약·브리핑·암기해서 객관식 시험 잘 치는 이러한 암기하는 기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성교육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재설계돼야 되겠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서 장관님이 지금 이 정권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장 잘 갖고 계신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을 하실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자면, 최근에 우연히 읽은 책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세계 인구의 0.2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의 30%, 40%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오전에는 탈무드를 가르치고 오후에 교과를 가르친답니다.

이렇게 인성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여태까지 우리 교육부차관께서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겠지만 혹시 오늘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시고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나승일**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부차관으로서 한 가지씩 모든 사항들을 잘 챙겨서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관심과 열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박

인숙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정진후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신학용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업무 준비를 하셨는데, 철학·비전·목표·교육정책에 대해서 준비는 많이 하셨지만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앞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일을 정말로 엄수해 주시기 바라구요.

많은 위원님들 문제 제기가 장관님 이하 차관님, 전 직원 여러분에게도 아마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새 정부 시작되니까 확실히 한번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좋은 대안 또 개선된 정책 대안으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남수 장관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 주신 도종환 위원님, 현영희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그리고 김세연 위원님, 감사 말씀과 아울러서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14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은희	김상희	김세연	김윤덕
김장실	김태년	김희정	도종환
박성호	박인숙	박혜자	박홍근
서상기	신학용	유기홍	유은혜
이균현	이에리사	이용섭	이학재
정세균	정진후	주호영	현영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박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서남수
차관	나승삼
기획조정실장	성삼은
교육정책실장	심은석
대학지원실장	박백범
정책기획관	정종철
국제협력관	강영순
학교정책관	김영운
학생복지안전관	황홍규
대학정책관	박춘란
대학지원관	박준미
학술장학지원관	서유병
지방교육지원국장	정병용
평생직업교육국장	박이근
교육정보통계국장	이문희
대변인	김준모
감사관	박태진
국사편찬위원장	이은주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서명
중앙교육연수원장	서이종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이태운
국립국제교육원장	하태명
대한민국학술원장	최진명
사무국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유기홍·김세연·이찬열·김태년·윤관석·김재윤·박홍근·설훈·유성엽·임수경·유은혜·서상기 의원 발의)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유기홍·김세연·이찬열·김태년·윤관석·민홍철·박홍근·설훈·유성엽·임수경·정진후·유은혜·이상규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유기홍·김세연·이찬열·김태년·윤관석·민홍철·박홍근·설훈·추미애·임수경·정진후·이해찬·유은혜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유기홍·김세연·이찬열·김태년·윤관석·민홍철·김재윤·박홍근·설훈·

임수경 · 이해찬 · 유은혜 의원 발의)

대학도서관진흥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김세연 · 윤관석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호 · 이낙연 · 김우남 · 민병주 · 문대성 · 강은희 · 최봉홍 · 하태경 · 이철우 · 정진후 · 서상기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7일 회부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유기홍 · 김세연 · 이찬열 · 김태년 · 윤관석 · 민홍철 · 김재윤 · 박홍근 · 설훈 · 임수경 · 이해찬 · 유은혜 의원 발의)

3월 28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6. 14 김우남 · 이찬열 · 배기운 · 오제세 · 우윤근 · 민홍철 · 최민희 · 김광진 · 김춘진 · 장하나 · 유성엽 · 김재윤 · 강창일 의원 발의)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2. 6. 15 남경필 · 김태년 · 서상기 · 김태호 · 박인숙 · 길정우 · 전하진 · 김진표 · 신장용 · 고희선 · 김현숙 · 김춘진 · 신의진 · 신동우 · 한선교 · 정성호 · 이한성 · 강석훈 발의)

지역문화진흥법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2. 6. 19 이병석 · 김태환 · 정희수 · 김희국 · 손인춘 · 정수성 · 한선교 · 신성범 · 이한성 · 이종진 · 이완영 · 강석호 · 이철우 의원 발의)

경륜 ·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주승용 · 우윤근 · 김성주 · 오제세 · 민홍철 · 정성호 · 이춘석 · 김우남 · 최민희 · 유대운 · 김성찬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김동철 · 박주선 · 배기운 · 최민희 · 강기정 · 김성주 · 정성호 · 신계륜 · 김광진 · 유은혜 · 장하나 · 김성곤 · 장병완 의원 발의)

경륜 ·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김동철 · 박주선 · 배기운 · 최민희 · 강기정 · 정성호 · 신계륜 · 김광진 · 유은혜 · 장하나 · 김성곤 · 장병완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주승용 · 우윤근 · 김성주 · 오제세 · 민홍철 · 정성호 · 이춘석 · 김우남 · 최민희 · 유대운 · 김성찬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2. 6. 25 노웅래 · 우윤근 · 강기정 · 김용익 · 안규백 · 김춘진 · 김세연 · 배재정 · 전병헌 · 홍의락 의원 발의)

지리산 용유담 국가명승 지정과 지리산댐(문정홍수조절댐)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2012. 6. 26 강동원 · 우원식 · 정세균 · 김제남 · 심상정 · 이미경 · 이학영 · 김경협 · 김상희 · 노회찬 · 은수미 · 박홍근 · 이윤석 · 유성엽 · 유대운 · 김현미 · 안규백 · 이찬열 · 전병헌 · 설훈 · 홍의락 · 황주홍 · 장하나 · 박민수 · 김광진 · 윤후덕 · 민홍철 · 최재천 · 홍영표 · 최동익 · 한정애 · 김춘진 · 배기운 · 부좌현 · 정청래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2. 6. 27 이우현 · 김경협 · 김민기 · 김장실 · 노철래 · 신동우 · 이노근 · 李宰榮 · 이현재 · 장윤석 · 황영철 의원 발의)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2. 6. 27 한선교 · 홍문표 · 서용교 · 김성찬 · 정갑윤 · 문대성 · 김한표 · 권성동 · 이우현 · 김을동 · 김민기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2012. 6. 28 김현 · 장하나 · 도종환 · 김태년 · 전병헌 · 우원식 · 유대운 · 최민희 · 강기정 · 이윤석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2012. 6. 28 문대성 · 정갑윤 · 김희국 · 한선교 · 신성범 · 이에리사 · 권은희 · 김현숙 · 김한표 · 홍일표 · 현영희 · 김세연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7. 4 길정우 · 박덕흠 · 강기윤 · 심윤조 · 도종환 · 김춘진 · 박인숙 · 유정복 · 권은희 · 신동우 · 최민희 · 주호영 · 김장실 · 김광진 · 최동익 · 권성동 · 서영교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2012. 7. 6 박창식 · 이만우 · 안홍준 · 정희수 ·

송광호 · 한선교 · 이우현 · 김성곤 · 김성찬 ·
이한성 · 박인숙 · 이에리사 · 김장실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 발의)

(2012. 7. 9 배기운 · 최규성 · 주승용 · 강창일 ·
김상희 · 원혜영 · 장하나 · 오제세 · 김성주 ·
장병완 · 김윤덕 · 강기정 · 김영록 · 김성곤 ·
우윤근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3 김태원 · 유기준 · 이명수 · 주영순 ·
민현주 · 김동완 · 박성호 · 강은희 · 강기운 ·
주호영 · 조현룡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3 심재철 · 황진하 · 박인숙 · 신경림 ·
이재균 · 정성호 · 이한성 · 이재영 · 강은희 ·
김을동 의원 발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23 정부 제출)

경륜 ·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7 박인숙 · 민홍철 · 강동원 · 이명수 ·
강기운 · 김태원 · 김성찬 · 정문헌 · 서상기 ·
김장실 · 홍종학 · 강은희 의원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2. 7. 27 김재윤 · 민홍철 · 문병호 · 이찬열 ·
유대운 · 최민희 · 안민석 · 박남춘 · 배기운 ·
이미경 · 박민수 · 김성곤 · 강동원 · 정성호 ·
김승남 · 김윤덕 · 김우남 · 진성준 · 김기식 ·
진정희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2. 7. 31 노웅래 · 전순옥 · 우윤근 · 신장용 ·
신경민 · 김재윤 · 전해철 · 김춘진 · 백재현 ·
황주홍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

(2012. 7. 31 도종환 · 윤후덕 · 최민희 · 한정애 ·
배재정 · 최재성 · 이미경 · 김영환 · 최동익 ·
정진후 · 김춘진 · 김윤덕 · 김성곤 · 유기홍 ·
이상민 · 신경민 · 민홍철 · 강동원 · 유인태 ·
노웅래 · 홍종학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2. 7. 31 도종환 · 윤후덕 · 최민희 · 한정애 ·
배재정 · 최재성 · 이미경 · 김영환 · 최동익 ·
정진후 · 김윤덕 · 김성곤 · 유기홍 · 이상민 ·
신경민 · 민홍철 · 강동원 · 유인태 · 노웅래 ·
홍종학 의원 발의)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8. 7 배기운 · 정호준 · 최규성 · 주승용 ·
강창일 · 김상희 · 장하나 · 오제세 · 김성주 ·
김윤덕 · 장병완 · 강기정 · 김영록 · 김성곤 ·
우윤근 의원 발의)

경륜 ·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2012. 8. 7 장병완 · 노웅래 · 심재권 · 백재현 ·
원혜영 · 강기정 · 우윤근 · 안규백 · 박남춘 ·
이상일 · 이우현 · 신경민 · 강창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2012. 8. 7 이에리사 · 김현숙 · 이종진 · 정희수 ·
배재정 · 김성곤 · 김태원 · 김장실 · 최민희 ·
박홍근 · 이만우 · 박인숙 · 민병주 · 주호영 ·
김정록 · 윤명희 · 이현재 · 송영근 · 최봉홍 ·
김태흠 · 김명연 · 민현주 · 황영철 · 손인춘 ·
김을동 · 이재영 · 문대성 · 강은희 · 李宰榮 ·
정성호 · 염동열 · 박창식 · 김희정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2012. 8. 14 이에리사 · 김현숙 · 이종진 · 정희수 ·
배재정 · 김성곤 · 김태원 · 김장실 · 최민희 ·
박홍근 · 이만우 · 민병주 · 주호영 · 김정록 ·
윤명희 · 이현재 · 송영근 · 최봉홍 · 김태흠 ·
김명연 · 민현주 · 황영철 · 손인춘 · 이자스민 ·
김을동 · 문대성 · 정우택 · 강은희 · 박인숙 ·
李宰榮 · 염동열 · 이우현 · 박창식 · 김희정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 발의)

(2012. 8. 14 박창식 · 박성호 · 김상민 · 최봉홍 ·
정갑윤 · 박민식 · 민현주 · 한선교 · 송광호 ·
강은희 의원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

(2012. 8. 14 박창식 · 김을동 · 박성호 · 김기선 ·

김상민 · 이완영 · 최봉홍 · 정갑윤 · 박민식 · 민현주 · 이에리사 · 한선교 · 윤명희 · 송광호 · 주호영 · 강은희 의원 발의)

체육인 복지법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2012. 8. 17 문대성 · 정갑윤 · 여상규 · 문정림 · 유기준 · 김장실 · 김희국 · 이인제 · 박대출 · 김용태 · 이한성 · 이현승 · 이우현 · 남경필 · 박성호 · 하태경 · 윤상현 · 염동열 · 황영철 · 金永柱 · 김도읍 · 이진복 · 서영교 · 조명철 · 성완중 · 황진하 · 유승우 의원 발의)

경륜 ·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0 강동원 · 전병헌 · 최민희 · 신경민 · 전정희 · 정진후 · 김경협 · 심상정 · 우원식 · 김상희 · 서기호 · 박홍근 · 문병호 · 이윤석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2. 8. 20 강동원 · 전병헌 · 최민희 · 신경민 · 전정희 · 정진후 · 김경협 · 심상정 · 우원식 · 김상희 · 서기호 · 박홍근 · 문병호 · 이윤석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1 정호준 · 최민희 · 민홍철 · 홍종학 · 배재정 · 박홍근 · 진선미 · 진성준 · 우원식 · 배기운 · 김영주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2. 8. 21 길정우 · 유정복 · 박인숙 · 박대출 · 박덕흠 · 김장실 · 정성호 · 이한성 · 권성동 · 이종진 · 강기운 · 김을동 · 유승우 · 남경필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2. 8. 22 남경필 · 전병헌 · 최민희 · 서용교 · 홍일표 · 문대성 · 신의진 · 염동열 · 정우택 · 홍지만 · 김을동 · 김현숙 · 서상기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2012. 8. 24 김재운 · 김성곤 · 민홍철 · 박남춘 · 배기운 · 윤관석 · 이상민 · 전정희 · 정성호 · 홍종학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2012. 8. 28 이에리사 · 정문헌 · 이재영 · 홍지만 · 손인춘 · 김희정 · 강은희 · 도종환 · 유기준 · 김영우 · 이우현 · 김장실 · 이만우 · 김태원 · 김명연 · 황영철 · 정성호 · 이한성 · 박인숙 · 김춘진 · 신의진 · 민병주 · 김태흠 · 박홍근 · 김도읍 · 유성엽 · 박성효 · 민현주 · 김을동 · 진선미 · 윤명희 · 김현숙 · 문대성 · 신학용 · 이자스민 의원 발의)

지역문화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2. 8. 29 도종환 · 김태년 · 이춘석 · 민홍철 · 윤후덕 · 김관영 · 신장용 · 김성주 · 정진후 · 김윤덕 · 이학영 · 김현 · 이종걸 · 유은혜 · 유기홍 · 이미경 · 정성호 · 전정희 · 윤관석 · 유승희 · 유성엽 · 임수경 · 김용익 · 최민희 · 원혜영 · 오제세 · 김춘진 · 김재운 · 장병완 · 김성곤 · 김정록 · 백군기 · 진성준 · 박홍근 · 이낙연 · 최재천 · 유대운 · 박혜자 · 유인태 · 김경협 · 김기식 · 양승조 · 전병헌 · 신경민 · 전순옥 · 최동익 · 노웅래 · 배재정 · 배기운 · 박민수 · 문병호 · 한명숙 의원 발의)

일본의 육일승천기 사용과 경기장내 반입 금지 를 위한 대응 촉구 결의안

(2012. 8. 29 김재운 · 오영식 · 유성엽 · 김태년 · 도종환 · 배재정 · 유대운 · 박남춘 · 최원식 · 황주홍 · 홍익표 · 유은혜 · 김기준 · 최민희 · 박민수 · 이학영 · 임수경 · 임내현 · 변재일 · 장하나 · 부좌현 · 전해철 · 홍의락 · 최재천 · 이종걸 · 김진표 · 김관영 · 심재권 · 이찬열 · 정호준 · 정청래 · 홍종학 · 유인태 · 이상직 · 박완주 · 서영교 · 김승남 · 진성준 · 김민기 · 백군기 · 민홍철 · 김영주 · 김광진 · 이목희 · 남인순 · 김기식 · 장병완 · 김상희 · 박혜자 · 은수미 · 진선미 · 인재근 · 김영록 · 오제세 · 김동철 · 김성곤 · 이연주 · 백재현 · 송호창 · 이윤석 · 주승용 · 김현미 · 배기운 · 정성호 · 박인숙 · 서상기 · 안민석 의원 발의)

어르신 여가활동 진흥법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8. 30 배기운 · 김우남 · 최규성 · 양승조 · 강기정 · 조정식 · 김성주 · 심재권 · 주승용 · 원혜영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2. 9. 3 김성곤 · 이춘석 · 박기춘 · 안홍준 · 이에리사 · 이낙연 · 정성호 · 유승우 · 배기운 · 신경민 · 서영교 · 문병호 · 유성엽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2. 9. 4 정청래 · 이춘석 · 유인태 · 박홍근 · 노웅래 · 원혜영 · 최민희 · 안규백 · 유성엽 · 도종환 의원 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2. 9. 4 박인숙 · 이재균 · 류지영 · 손인춘 · 함진규 · 김태원 · 이노근 · 정의화 · 강은희 · 박성호 · 윤명희 · 길정우 · 민현주 · 김명연 · 전정희 · 이종훈 · 윤재옥 · 안홍준 · 신경림 · 이에리사 의원 발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2. 9. 10 박상은 · 이현재 · 함진규 · 윤진식 · 안덕수 · 조현룡 · 안효대 · 강석호 · 이종진 · 이재균 · 김태흠 · 김명연 · 윤상현 · 이학재 · 홍일표 · 김영록 · 윤관석 · 송호창 · 윤호중 · 노웅래 · 박완주 · 양승조 · 전병헌 · 김동철 · 이찬열 · 김춘진 · 전해철 · 윤후덕 · 이낙연 · 이석현 · 유인태 · 백재현 · 최재성 · 조정식 · 김기준 · 최민희 · 전정희 · 박남춘 · 김우남 · 김재윤 · 홍종학 · 배기운 · 추미애 · 서영교 · 홍영표 · 유대운 · 장병완 · 신경민 · 김태년 · 신학용 · 주승용 · 김상희 · 최원식 · 김성곤 · 문병호 의원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10 최민희 · 윤후덕 · 김우남 · 배기운 · 진선미 · 박수현 · 김승남 · 유대운 · 강동원 · 전병헌 · 김춘진 · 노웅래 · 김윤덕 · 김재윤 · 이미경 · 문병호 · 민홍철 · 심재권 · 김경협 · 윤호중 의원 발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9. 11 길정우 · 정문헌 · 유승우 · 신경민 · 김을동 · 안홍준 · 정성호 · 김장실 · 박인숙 · 김동완 · 오제세 · 류지영 · 남경필 · 김희정 · 함진규 · 한선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9. 12 전병헌 · 김용익 · 박수현 · 김승남 · 이낙연 · 배재정 · 김윤덕 · 이미경 · 최민희 · 배기운 · 안민석 · 문병호 · 김성주 · 최동익 · 김성곤 · 은수미 · 노웅래 · 김동철 · 서영교 · 김미희 · 민홍철 · 백재현 · 김민기 · 강원동 · 유은혜 · 김경협 · 도종환 · 홍종학 · 신경민 · 유승희 · 정성호 · 김재윤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강동원 · 김경협 · 김성곤 · 김우남 · 김재윤 · 김춘진 · 김현미 · 노웅래 · 서기호 · 신경민 · 심상정 · 우원식 · 유성엽 · 윤후덕 · 이미경 · 이윤석 · 이찬열 · 이춘석 · 전정희 · 정진후 · 최동익 · 최민희 · 홍의락 의원 발의)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황주홍 · 주승용 · 김동철 · 이낙연 · 김성곤 · 우윤근 · 김우남 · 김재윤 · 문병호 · 김영록 의원 발의)

동화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2. 9. 19 유성엽 · 전정희 · 이춘석 · 김상희 · 신장용 · 홍문표 · 김우남 · 임수경 · 김형태 · 강동원 · 윤명희 · 유은혜 · 전병헌 · 김윤덕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12. 9. 20 류성걸 · 박성호 · 김희국 · 홍지만 · 김세연 · 여상규 · 정희수 · 박대동 · 박상은 · 심학봉 · 김명연 · 이학재 · 최봉홍 · 이재영 · 윤재옥 · 염동열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21 유승희 · 이미경 · 김윤덕 · 배재정 · 유대운 · 문병호 · 김승남 · 최동익 · 정성호 · 강동원 · 김장실 · 김성곤 · 박인숙 · 홍종학 · 김상희 · 인재근 · 김재윤 · 유성엽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2. 9. 21 윤관석 · 전병헌 · 유대운 · 김세연 · 윤후덕 · 박완주 · 김성곤 · 이상직 · 배재정 · 김관영 · 홍익표 · 우윤근 · 유승희 · 김제남 · 노영민 · 배기운 · 장하나 · 인재근 · 유성엽 · 김미희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24 최민희 · 윤후덕 · 진선미 · 김승남 ·

유대운 · 강동원 · 배기운 · 김재운 · 이미경 ·
우상호 · 김성곤 · 민홍철 · 심재권 · 윤호중 ·
유성엽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5 정희수 · 윤명희 · 이명수 · 이철우 ·
김성곤 · 정문헌 · 김태원 · 이종진 · 이한성 ·
이에리사 · 이노근 · 주영순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25 정부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9. 27 김윤덕 · 유성엽 · 신경민 · 이춘석 ·
이상직 · 최민희 · 배기운 · 김관영 · 윤관석 ·
김춘진 · 김성주 · 유승희 · 진성준 · 최규성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조원진 · 주호영 · 정수성 · 김을동 ·
류지영 · 김재원 · 권은희 · 김희국 · 이철우 ·
박대동 · 김상훈 의원 발의)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이명수 · 정희수 · 김태흠 · 이현승 ·
박수현 · 이이재 · 이노근 · 안효대 · 이윤석 ·
조현룡 · 李宰榮 · 박인숙 · 김을동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전해철 · 서영교 · 이상민 · 서기호 ·
박범계 · 유대운 · 최규성 · 홍종학 · 박남춘 ·
김재운 · 백재현 · 정성호 의원 발의)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9 이명수 · 정희수 · 김태흠 · 이현승 ·
박수현 · 이이재 · 이노근 · 안효대 · 이윤석 ·
조현룡 · 李宰榮 · 박인숙 · 김을동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9 정부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10 한선교 · 박창식 · 이우현 · 남경필 ·
홍지만 · 이재영 · 박대출 · 문대성 · 김희정 ·
서용교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9 최재천 · 정성호 · 유대운 · 김윤덕 ·

배기운 · 남경필 · 홍지만 · 민병두 · 김을동 ·
전순옥 · 신장용 · 이미경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전병헌 · 정성호 · 신경민 · 김윤덕 ·
최민희 · 도종환 · 김관영 · 유승희 · 강동원 ·
박남춘 의원 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5 길정우 · 신의진 · 이완영 · 유승우 ·
정문헌 · 김장실 · 이만우 · 김을동 · 이노근 ·
홍지만 · 이재영 · 김성곤 · 권성동 · 염동열 ·
이우현 의원 발의)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강창일 · 최규성 · 임수경 · 이목희 ·
배기운 · 신장용 · 홍종학 · 주승용 · 김성곤 ·
이미경 의원 발의)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9 전병헌 · 임수경 · 노웅래 · 유성엽 ·
배재정 · 도종환 · 신경민 · 최민희 · 최재천 ·
윤관석 · 김윤덕 · 정세균 · 강동원 · 배기운 ·
박민수 · 홍종학 · 김성곤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김윤덕 · 유성엽 · 신경민 · 이춘석 ·
이상직 · 최민희 · 배기운 · 김관영 · 윤관석 ·
김춘진 · 유승희 · 김성주 · 진성준 · 최규성 ·
배재정 · 홍종학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0 이상일 · 김을동 · 김진태 · 김재원 ·
김태환 · 신의진 · 권은희 · 박덕흠 · 유승우 ·
주호영 · 이자스민 · 홍지만 · 조원진 의원 발의)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원혜영 · 배기운 · 박주선 · 김영주 ·
박남춘 · 조경태 · 문병호 · 정병국 · 도종환 ·
안민석 · 김현 · 이석기 · 신경민 · 김윤덕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6 신성범 · 강기윤 · 안홍준 · 김성태 ·
이재영 · 김재경 · 김희국 · 김영우 · 윤진식 ·
김태흠 의원 발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

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7 조해진·조현룡·문대성·홍지만·김희정·남경필·이재영·金永柱·이우현·박상은·김한표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7 조해진·조현룡·문대성·홍지만·김희정·남경필·이재영·金永柱·이우현·박상은·김한표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1. 9 전병헌·김대년·임수경·배기운·유성엽·최민희·홍종학·김광진·박남춘·김미희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2 윤관석·오영식·배기운·김세연·임수경·金永柱·신기남·인재근·이상직·김성곤·추미애·박주선·김관영·변재일·김윤덕·노웅래·유승희·조해진·안규백·이한성·윤후덕 의원 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3 조해진·남경필·주호영·김용태·이우현·문대성·홍지만·염동열·한선교·김한표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윤관석·오영식·배기운·김세연·인재근·도중환·이상직·김성곤·박완주·추미애·박주선·변재일·김윤덕·노웅래·유승희·안규백·윤호중·이한성·윤후덕·홍종학·문병호·최민희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6 서상기·정두언·박인숙·박성호·홍지만·김을동·윤명희·민병주·박창식·이에리사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전병헌·배기운·이종걸·김성곤·김우남·홍영표·이학영·신장용·최동익·안민석·박남춘·최민희·김춘진·박주선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전병헌·배기운·이종걸·김성곤·김우남·홍영표·이학영·신장용·최동익·박남춘·최민희·박주선 의원 발의)

체육기본법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6 문대성·민병주·김영주·함진규·문정림·정갑윤·한선교·이만우·남경필·이완영·고희선·李宰榮·이자스민·김태원·권은희·김세연·김상민·김현숙 의원 발의)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7 김희정·강은희·김정훈·이체익·윤영석·김을동·이에리사·윤재옥·정수성·이장우·안효대·민현주·김도읍·손인춘·정문헌·김기현·정의화·남경필·이종훈·김한표·홍지만·이재영·길정우·신경림·송영근·류지영·조해진·신의진·권성동·서병수·金永柱·하태경·나성린·이진복·유기준·박민식·이현승·김세연·김정록·서용교·이주영·문대성·유재중·민병주 의원 발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7 김춘진·김성곤·김승남·정희수·김우남·이용섭·강창일·김상희·김재윤·박남춘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7 김장실·강은희·남경필·배재정·이만우·김성곤·김종태·김춘진·신의진·이한성·이재영 의원 발의)

체육인 복지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이에리사·유성엽·유기홍·이자스민·박대동·정우택·윤명희·정희수·민병주·이우현·김재경·최봉홍·김을동·김영우·원유철·이한성·여상규·황영철·김한표·강은희·김명연·정두언·김태흠·김세연·서상기·신학용·신의진·이종훈·이주영·염동열·유재중·김장실·이철우·정몽준·이만우·민현주·김정훈·손인춘·송광호·유승우·김태원·장윤석·이노근·이재영·이명수·李宰榮·김정록·이한구·류지영·서용교·길정우·박성호·이병석·함진규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이예리사·손인춘·송광호·이채익·유승우·박대동·김태원·장윤석·이노근·李宰榮·이만우·문대성·이현재·유성엽·이종훈·김영우·김세연·이한성·류지영·이우현·함진규·이재영·이명수·김정록·최봉홍·강은희·윤명희·박성호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백재현·김우남·강기정·배기운·정청래·안민석·박남춘·이찬열·김진표·최재성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백재현·김우남·강기정·배기운·정청래·안민석·박남춘·이찬열·김진표·최재성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백재현·김우남·강기정·배기운·정청래·안민석·박남춘·이찬열·김진표·최재성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백재현·김우남·강기정·배기운·정청래·안민석·박남춘·이찬열·김진표·최재성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 홍지만·남경필·윤명희·조해진·문대성·신의진·이재영·이완영·김현숙·金永柱·정문헌·이한성·이우현·이노근·박인숙·최경환·이종훈·서병수·류지영·김희국·정수성·이자스민 의원 발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2. 4 윤관석·노웅래·박원석·배기운·김윤덕·김세연·박주선·배재정·유기홍·안민석·박완주·이상직·진성준·유승희·도종환·안규백·오영식·김춘진·장병완·양승조·강창일·김관영·추미애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

(2012. 12. 5 홍지만·남경필·윤명희·문대성·신의진·이재영·이완영·김현숙·金永柱·문정림·정문헌·이한성·이우현·이종훈·류지영·김희국·정수성·이노근·이자스민

의원 발의)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2. 12. 6 정부 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2. 6 전병헌·金永柱·노웅래·홍중학·안민석·강동원·배기운·김성곤·정청래·김우남·최민희·김진표·이상직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2. 6 안민석·이종걸·양승조·백재현·김영록·이낙연·김성곤·강창일·김우남·전병헌 의원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2. 12. 6 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안민석·최민희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김우남·김세연·강기정·안민석·김영록·최봉홍·은수미·유승우·전하진·신장용·이만우·김재원·유성엽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전병헌·이만우·정호준·신장용·이학영·유성엽·박주선·이종걸·김우남·진성준 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11 정부 제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2. 13 조해진·조현룡·김희정·이우현·김한표·이군현·정문헌·류지영·김태흠·정우택·김정록·민병주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012. 12. 18 정세균·김진표·강기정·이원욱·안규백·전병헌·김춘진·백재현·김영주·신장용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27 정부 제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3. 1. 3 김윤덕·김춘진·박민수·이상직·진성준·김관영·김성주·전정희·최규성·

- 유성엽 · 이춘석 · 강동원 의원 발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 3 윤관석 · 김춘진 · 유기홍 · 홍종학 · 인재근 · 홍지만 · 김태년 · 배재정 · 이상직 · 추미애 · 박남춘 · 오영식 · 김관영 · 박완주 · 배기운 · 신장용 · 우원식 · 김영록 · 이원욱 · 강동원 · 신기남 · 유승희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 7 김을동 · 윤명희 · 김희선 · 이명수 · 윤상현 · 이재영 · 李宰榮 · 김재원 · 서용교 · 송영근 · 박인숙 · 이채익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3. 1. 9 최재천 · 윤관석 · 이상직 · 도종환 · 홍종학 · 배기운 · 김재운 · 전병헌 · 강동원 · 이석기 · 신경민 · 이학영 · 최민희 · 박주선 · 남경필 · 정성호 의원 발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3. 1. 9 남경필 · 정두언 · 김세연 · 민현주 · 이자스민 · 서상기 · 전하진 · 문대성 · 신의진 · 박민식 · 이만우 · 이종훈 의원 발의)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 14 김을동 · 한기호 · 이명수 · 이재영 · 이노근 · 박대동 · 李宰榮 · 서용교 · 송영근 · 김재원 · 이채익 의원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 14 최민희 · 강동원 · 김성곤 · 김영주 · 김현미 · 노응래 · 노회찬 · 박수현 · 박완주 · 박원석 · 배기운 · 배재정 · 신경민 · 원혜영 · 유성엽 · 유인태 · 이낙연 · 이상민 · 이인영 · 이한성 · 장병완 · 전순옥 · 전정희 · 전해철 · 정청래 · 조정식 · 홍종학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1. 16 정부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3. 1. 17 박남춘 · 배기운 · 박수현 · 문병호 · 김광진 · 윤관석 · 심재권 · 이상민 · 김민기 · 안규백 · 전해철 · 이인영 · 홍종학 · 전정희 · 전순옥 · 남인순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3. 1. 17 최재천 · 배기운 · 강동원 · 신경민 · 박주선 · 정성호 · 유성엽 · 이석기 · 남인순 · 심상정 · 홍종학 · 이종걸 · 김동철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 21 김재운 · 유성엽 · 안규백 · 이낙연 · 이상직 · 김우남 · 전병헌 · 문병호 · 신기남 · 박남춘 · 전정희 · 홍종학 · 이인영 · 전해철 · 정성호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 21 김재운 · 유성엽 · 이상직 · 김우남 · 문병호 · 신기남 · 박남춘 · 전정희 · 홍종학 · 남인순 · 박인숙 · 전해철 · 정성호 · 金永柱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 23 최민희 · 박수현 · 이춘석 · 홍종학 · 배기운 · 강동원 · 김성곤 · 윤관석 · 전정희 · 김민기 · 정성호 · 김윤덕 · 전해철 · 김재운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3. 1. 24 김도읍 · 남경필 · 정세균 · 이우현 · 이재영 · 권성동 · 유기준 · 이진복 · 정갑윤 · 배재정 · 李宰榮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1. 28 양승조 · 배재정 · 박홍근 · 조정식 · 전병헌 · 도종환 · 박남춘 · 박완주 · 김용익 · 김재운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 28 이낙연 · 배기운 · 우윤근 · 윤관석 · 김우남 · 심재권 · 남인순 · 전정희 · 김성곤 · 정성호 · 김춘진 · 박인숙 의원 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2013. 1. 31 김장실 · 김정우 · 김성곤 · 이만우 · 김정록 · 손인춘 · 김종태 · 정성호 · 정문헌 · 민병주 · 金永柱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1. 31 양승조 · 배재정 · 박홍근 · 조정식 · 전병헌 · 도종환 · 박남춘 · 박완주 · 김용익 · 김재운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이노근·정문헌·정희수·김태원·한선교·박인숙·이에리사·이이재·이장우·함진규·이헌승·김태흠·이재균·김관영·정몽준·강은희·정수성·김한표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2013. 2. 18 이에리사·김을동·심윤조·문정림·김정록·안홍준·유성엽·서용교·김명연·주호영·민현주·김세연·김춘진·김영우·유승민·박인숙·이장우·강은희·박성호·서상기·원유철·손인춘·민병주·김장실·이한성·이군현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3. 2. 18 길정우·안홍준·이만우·박인숙·이완영·이에리사·이우현·정문헌·이한성·남경필·김을동·염동열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3. 2. 22 노웅래·장하나·배기운·김재윤·윤관석·김춘진·문병호·배재정·박남춘·전정희 의원 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2. 26 김학용·유승우·최봉홍·박인숙·이한성·김태원·이군현·조해진·김상만·이진복·박대출·서용교·안중범·박성호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2. 26 김학용·유승우·최봉홍·황영철·이한성·김태원·조해진·김상민·이진복·박대출·서용교·안중범 의원 발의)

여행업법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3. 4 김태원·정희수·정갑윤·김세연·강기윤·이낙연·박성호·서상기·강은희·이자스민·이한성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3. 4 김태원·정희수·정갑윤·김세연·강기윤·이낙연·박성호·서상기·강은희·이자스민·이한성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3. 3. 12 이상일·李宰榮·유승우·노철래·이재영·한선교·이만우·김태원·최봉홍·

김장실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3. 3. 12 장병완·이종걸·도종환·조정식·배기운·양승조·윤관석·김동철·백재현·안민석·박주선·노웅래·전병헌·유승희·신경민 의원 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3. 3. 14 염동열·이한성·문대성·한기호·이재영·이자스민·윤관석·권성동·김기선·김진태·정문헌·안덕수·김동완·황영철·한선교·이철우·문정림·이에리사 의원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3. 3. 28 전해철·최원식·배기운·한명숙·백재현·최재성·박남춘·김태년·이춘석·박영선 의원 발의)

이상 135건 3월 2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3. 29 박성호·김기선·유승우·박덕흠·金永柱·윤재옥·황영철·고희선·강기윤·이찬열·유대운·백재현·박남춘 의원 발의)
4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사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2. 8. 7 김관영·한정애·유대운·김윤덕·안규백·장병완·김동철·김춘진·조정식·전정희·이석현·원혜영·민홍철·이미경·홍종학·유기준·김영환·배기운·강은희·신학용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2. 8. 13 배재정·강동원·김용익·김윤덕·노영민·도종환·신경민·원혜영·임수경·한명숙·한정애·최동익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 9. 4 정부 제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3. 2. 18 김윤덕·유성엽·홍종학·김춘진·

김성주 · 전정희 · 윤관석 · 진성준 · 유승희 ·
이상직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3. 3. 11 정호준 · 김용익 · 안규백 · 이춘석 ·
배기운 · 노용래 · 양승조 · 박홍근 · 한명숙 ·
박완주 · 강기정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